

2016 丙申年 新年사

“所望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



송정명 목사
월드미션대 총장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주변에서 지난 한 해는 유난히도 힘들고 마음이 무거운 해였다고 괴로워 하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지금까지 수 천년 동안 지켜져 내려오던 성경적인 결혼 제도를 뒤엎고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인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견지 해오던 많은 크리스천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4천여 교회가 문을 닫고 매일 3천 5백여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마음 무거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매일 테

리의 공포가 도처에서 꼬리를 물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 변화를 통한 홍수, 지진, 토네이도 같은 재해와 총기류 사고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안에 떨면서 매일 매일 살얼음판을 걸어가느라 심정으로 지나 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제 사정도 전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어 자조적인 수저론(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이나 3포, 5포, 7포라는 다소 생소한 말들을 뱉어내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향해 헬조선이라고 비하시키는 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디 있냐고 절규하면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한 해가 물러가고 역사의 뒤안길로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그런 마음 무거웠던 지난 2015년 한 해는 저 멀리 물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망찬 새로운 해를 허락해주셨습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린 LOLYA 수양회에는 22개 교회, 약 5백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은혜를 나눴다.

“주님과 함께 한 크리스천 ‘믿음의 여정’”

22개 교회, 500여 학생들 참여...회복과 치유의 귀중한 은혜 체험해

Live Out Loud Youth Alliance (이하 LOLYA, 대표 제이 이 목사) 주최 2015 겨울수양회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믿음의 여정’ 주제아래 Camp Cedar Crest, Running Springs에서 열렸다.

이 수양회에는 남가주 지역 소재 중소형 교회와 아리조나주 소재 교회 총 22개 교회로부터 온 약 5백여 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해 회복과 치유, 그리고 믿음의 돌파를 경

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 수양회는 19명의 사역자들과 50여 명의 사역자 스태프들이 청소년들의 영적성장을 위해 자원하여 헌신적으로 섬겼다.

감사로는 예배 강사에 빌리 김 전도사(사랑의교회 영여 대학부), 세미나 인도에 이준 목사(의의나루, 오병이어, YWAM 대표), 찬양 인도에 마이클 김 전도사(디사이플커뮤니티

교회 중고등부) 등이 함께 섬기며 그들의 사역 현장에서 동행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청소년들에게 믿음에 대한 강한 도전을 심어줬다.

지난 2000년부터 청소년들의 영적성장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시작된 이 수양회는 2011년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청소년 영성 회복운동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자료제공: 에스더 정 전도사]



엄규서 목사(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가 신년하례예배와 월례회에 참석한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남가주 목회자들, 신년하례예배로 2016년 새해 맞아”

목사회 주최로 70여 명 참석... 월례회도 겸해 예배드려

남가주한인목사회(이하 목사회, 회장 엄규서 목사)가 2016년을 맞이해 신년하례예배를 지난 3일(주일) 오후 월서크리스천교회(담임 엄규서 목사)에서 드렸다. 이 행사에는 목회자 30여 명을 비롯해 총 7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함께 신년을 맞이하는 예배를 드리고 월례회를 진행한 후 만찬과 교제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월례회에서는 49대 목사회회의 해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목사회는 지난 12월 말부터 전 임원과 분과위원장들이 돌아가며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다. 한 명이 하루를 맡아 특별히 기도하고 다른 이들은 그 임원이 맡은 직임이나 분과를 놓고 기도하는 방식이다.

또한, 목사회는 오는 10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이민 113주년 기념예배, 2월 7일 헌신예배, 삼일절 찬양제, 목사회 50주년 기념 화보집 제작 등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예배는 심진구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김정환 목사(이단대

책분과위원장) 기도, KCCD의 임혜빈 대표(정치외교분과위원장) 성경봉독, 이운영 목사(증경회장) “이 시대 본받지 말자” 주제 설교, 신소피아 목사(이민신학분과위원장) 헌금기도, 회장 엄규서 목사 환영인사, 알렉스 양 선교사(이사장) 신년인사, 김영대 목사(증경회장) 축사, 최경일 목사(총무) 광고 순으로 이어진 후, 류달영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를 끝으로 모든 순서를 은혜롭게 마무리했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타이어 데리점
GOOD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피드몬트 대학교 학생모집

피드몬트 대학교는 글로벌 지식정보시대에 기독교 인재양성목적을 지향하는 기독교 정규종합대학교입니다. 피드몬트 대학교는 정규 종합대학교로서 학문은 **통전, 통합, 통섭의 융합학문(Consilience, 'A jumping together knowledge')**을 추구합니다. 많은 지원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THINK 생각하라 → ANALYZE 분석하라 → CREATE 창조하라 → BETTER WORLD 더 나은 세상

FAITH 신앙
SCIENCE 과학

www.piedmontuniversity.com

PU 학과별 학사, 석사, 박사 학생 모집(00명)	
PU 한의과대학	PU신학 대학
PU 보육대학	PU음악 대학
PU 선교대학	PU ESL
PU 교육대학	PU ACL

이사장 Dr. Casey Kim, Ph.D.
 총장 Dr. William Stinde, Ph.D.
 부총장 Dr. Ronald Vandermey, Th.D.
 Chancellor Dr. Paul Kang, Th.D., Ph.D.

1캠퍼스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20
 Tel: (323) 777-5269, Fax: (323) 777-3681
 Email: Registrar@piedmontuniversity.com, admissions@piedmontuniversity.com

2캠퍼스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 257-8176, Fax: (424) 257-8136

2016 丙申年 新年사

“흐르는 시간 속 영원의 삶 사는 뚜벅이 人生”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우리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각적 혹은 주관적 시간입니다. 물리적 시간은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으로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이라면 제2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 감각적 시간은 시간의 물리적 흐름이 일정함에도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를 살다가 사멸하고 마는 하루살이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사이에 물리적 시간의 차이는 엄청 크겠지만, 어쩌면 감각적 시간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고 귀합니다.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귀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하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중죄를 짓고서 뉘우침의 시간 없이 감옥에서 한평생을 산 죄인보다는 절절히 사랑하며 반평생을 불꽃처럼 살다가 죽은 사람의 생이 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대신 현재에 충실하며 오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시간을 최대한 선용(善用)하는 비결일 것입니다. 형형색색의 오늘이 모여 우리의 생애를 만들겠지만 냉철하게 따지고 보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입니다. 내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김기석 목사의 글로 대신합니다.

“이 생기 총만한 날,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들사람을 만나고 싶다.

스스로 자기 삶의 입법자가 되어 새로운 생의 문법을 만들어 가는 사람. 전사가 되어 낡은 가치를 사정없이 물어뜯고 뚜벅뚜벅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버리고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기꺼이 끌어안는 성스러운 반역자들. 새로운 세상은 그들을 통해 도래한다. 우리보다 앞서 그 길을 걸었던 이는 그 길을 일러 십자가의 길이라 했다.(김기석 목사의 산문집 《일상순례자》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에는 낡은 가치와 세상의 인습적인 지혜를 전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역설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물이 아닌 사건이었고 진리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힘에 부치고 버겁지만 이 땅에 생명의 씨를 틔우고 세상을 희망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2016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진 뚜벅이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 생명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지난 날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1세기의 위대한 전도자요 사도로 섬기면서 가장 성공적인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고 있는 바울 사도는 그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수인의 신분이지만 자기는 꾀대를 향해 달려 간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앙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고전 13:13).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금년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일이 어떤 일이 될 것인지 기대하는 소망의 날갯짓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새 일들을 지난 한해 동안 힘들게 살아왔던 이웃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증거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러한 일들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 금년 한 해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 세모에 승리했다는 보고를 하나님 손길에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총회를 마친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중앙) 연임회장 강지원 목사, (왼쪽으로부터 네 번째)신임 수석부회장 김헬렌 목사.

“남가주여성 목사회 정기총회 열려”

6대 회장엔 강지원 목사 연임·신임 수석부회장엔 김헬렌 목사 선출

남가주한인여성목사회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11시 한우리장로교회(담임 강지원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6대 회장에 현 5대 회장인 강지원 목사의 연임을 결정하고 신임 수석부회장 김헬렌 목사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총무 정경희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는 김헬렌 목사 대표기도, 김인숙 목사 말씀봉독, 안선신 목사 특송, 이순자 목사 설교 순으로 이어진 후 강지원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순자 목사는 ‘자기부인과 영적 성장’(마16:21-28) 주제 말씀을 통

해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십자가 아래에서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말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완주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께 칭찬 받는 우리가 되자”고 했다.

신임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강지원 목사 △수석부회장: 김헬렌 목사 △부회장: 신사론 목사 △총무: 정경희 목사 △서기: 김인숙 목사 △회계: 조해영 목사, 박순희 목사 △감사: 이순자 목사

이영인 기자



(왼쪽으로부터) 소장 이지락 장로, 이길도 학생, 조수아 전 학생, 이사장 김재권 장로.

“shalom센터, 자원봉사 학생 대통령 표창 수여식 가져”

shalom센터(소장 이지락 장로)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2시 이 센터 강당에서 조수아 전 군과 이길도 군 두 자원 봉사 학생들에게 대통령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 두 학생은 비영리 단체를 도와 인어 때문에 각종 정보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도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받게 됐다.

한편, shalom센터는 비영리 주택상담

센터로서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유익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체다. 이외에도 세금보고 상담, 무료 안 건강 검진과 푸드뱅크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층 무료 음식 분배, 패러딩 클래스를 통해 부모와 자녀와의 갈등 해소 및 노인 복지 위한 노인 아파트 시설 등 한인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문의는 213-380-3700, 웹사이트: www.shalomcenter.net로 하면된다.

이영인 기자

“所望으로 맞이해야 할 새해”

[1면으로부터 계속]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시간의 경계선을 그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시간의 변화에 따라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다르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새해 벽두가 되면 우리도 새로운 다짐으로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상 2015년 12월 31일의 해 뜨는 시간과 2016년 1월 1일의 해 뜨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해 지는 시간도 거의 비슷합니다. 기온의 차이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5년 12월 31일과 2016년 1월 1일에 느끼는 감정의 차이는 크게 다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는 관점에서 생각도 각오도 계획도 확연하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간의 경계선을 그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로운 기분과 다짐으로 한 해를 또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심령을 잘 관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 때 지성적인 선지자로 알려진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지난 날의 아픔이나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새로운 일에 대해 소망 가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사 43:18-19장).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시대 시대 마다 역사를 주관해 오셨던 분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관하시고 섭리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날의 아픔과 상처를 빨리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새해에 우리에게 보여주시실 새로운 일에 기대감을 가지면서 소망의 뜻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금년 새해에 나 자신을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일까, 우리 가정을 위한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 조국이나 미국을 위한 새로운 일들은 어떤 것일까 하는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소망을 가지면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ABHE정회원 TRACS정회원 ATS정회원후보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로 인가된 D.Miss.(선교학 박사)과정!!

학위과정

박사	선교학 박사 (D.Miss) 42학점
석사	목회학 석사 (M.Div) 105학점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69학점
	선교학 석사 (MA ICS) 48학점
	100% 온라인가능
학사	신학사 (BA)
	100%온라인가능

- 우수한 교수진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 저렴한 교육비
- HD 시스템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강의
-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 발급 (본교 및 LA)
- 미 연방정부 학비보조 지원 -그랜트 및 론
-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 GMU 학교 장학금 수여

엘에이 지역 입학 설명회(Open House)
날짜 : 1월 23일 (토) 오후 3시
장소 : LA 한국교육원 강의실 (윌셔블러버드와 윌셔 플레이스)
행사내용 : 학교 소개, 학위 및 전공과정 소개, 정부학자금 및 장학금 소개, 유학생비자 소개, LA 연장 강의 소개, 참여자는 입학금 면제, 관심있는 모든 분 환영

 **2016년 봄학기 원서접수 마감 : 2016년 1월 31일**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www.gm.edu
English Track도 있음 (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LA Extension Class도 가능 (49% 까지 강의 수강)

■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 이메일: admissions@gm.edu ■ 웹사이트 : www.gm.edu



이취임식 감사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께” 견고 섬기며 기도하는 평신도연합회 될 것”

OC평신도연합회... 36대 회장 및 34대 이사장 이취임 감사예배 드려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이하 OC기평연, 회장 윤우경 집사) 36대 회장단 및 34대 이사장단 이취임 감사예배가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OC기평연 이사 정창섭 장로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관재필 목사(OC한인목사회 회장) 기도, ‘너는 내 아들이라’의 이은수 목사 특별찬양, 한기홍 목사 말씀 선포, 테너 이준실 전도사 봉헌찬양, 축사, 이취임 인사, 후원금 전달식, 박갑수 목사 작사 작곡 OC기평연 헌정가 ‘함께’ 합창, 연합회 기 이양식, 신임임원 및 이사장단 소개, 감사패 및 감사장 증정, 내빈 소개 등의 순서로 이어진 후 초대회장 양문국 목사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만찬시간에는 OC장로협의회 김종대 장로의 식사기도와 함께 주최 측에서 마련한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눴다.

이날 한기홍 목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히12:14)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OC기평연은 지난 35년 동안 지역 복음화에 신실하게 헌신해 왔다. 앞으로도 끝까지 쓰임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축사는 민승기 목사(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김용진 목사(아프리카 사랑재단 대표), 영 김 주하원 의원, 권석대 회장(미주평OC·샌디에고), 김가등 회장(OC한인회), 손인식 목사(그날까지 선교연합 대표), 박종술 목사(KCCC 간사) 등이

함께 했다.

연임 윤우경 회장 및 정준동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각각 함께 견고 섬기며 기도하는 평신도연합회가 되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을 위해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지난해 10월 합창제를 통해 모아진 모금액 2,032불은 통일 선교 단체인 그날까지선교연합(Until The Day)에게, 아프리카 말라위 교도소 선교단체인 사랑재단에 1,000불을 각각 후원하고, 한인대학생교회인 KCCC에도 일정액 후원금을 전달했다. 가입문의는 213-500-5449(윤우경 회장), 714-501-5479(정준동 이사장)으로 하면 된다.

이영인 기자

2016 丙申年신년사

“未知의 2016년 새로운 시작”



민승기 목사
OC교협 회장

2016년은 이민사회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더욱 밝아지는 희망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한해가 될 것을 다짐하며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시는 모든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도, 사회 봉사에 있어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함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내 모든 교회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됨이 기대되는 한해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리더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어려운 미자립교회의 PK자녀들의 장래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단체들이 조국 통일을 위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7000만 민족의 소원인 평화통일이 하루 속히 이루어지도록 OC교협도 조국 통일을 위한 준비작업에 참여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위해 저희 OC교협 모든 임원들은 더욱 겸손히 섬기고자 기도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OC교협이 서로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 한인교계와 동포사회, 그리고 미국 주류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사회 안팎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교회들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신실한 교회와 성도가 될 것을 당부합니다.

OC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OC교협)은 “세계 도처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파에 힘쓰는 선교사들과 또 이민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손길을 주는 협회가 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영적 리더로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협의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OC교협은 지역사회 복음화와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 전도지 무료로 드립니다”

세계사랑선교회... 전도자들 위해 전도지 보급



세계사랑선교회 대표 이삼선 목사.

가 손에 있으면 그것을 건네주기만 해도 된다. 이렇다 보니 전도지들도 비신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세련된 디자인을 입으며 발전해 왔지만 동시에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LA 인근 가디나에 위치한 세계사랑선교회는 100% 무료로 한국어, 영어, 스페니시 전도지를 보급하고 있다. 전도지 비용이 부담돼 전도를 못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단체는 한국의 아멘선교교회로부터 전도지를 공급받아 전 미주에 배부한다. 아멘선교교회가 선교차원에서 전도지를 제작해 남가주 롱비치 항구로 부쳐주면 세계사랑

선교회가 이를 받아서 미주 지역에 보급하는 것이다. 한 컨테이너에 1백만 장 가량의 전도지가 들어있는데 대략 1년간 사용하니 적어도 1년에 1백만 명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셈이다. 세계사랑선교회를 방문하면 직접 원하는 만큼 전도지를 가져갈 수도 있고 우편배송을 원할 경우 배송비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스페니시 전도지는 남미 단기선교를 떠나는 교회들로부터 큰 인기라 한다. 이렇게 전도지를 보급하는 지역 외에도 이 선교회는 직접 전도자들을 훈련해 전도 현장으로 보내기도 한다.

대표 이삼선 목사는 “전도지는 복

음 전파를 위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지만 이것조차도 부담되는 분들이 있다. 자기 시간과 차비를 들여 전도하러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명자라는 뜻인데, 전도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도를 못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대흥장로교회(권영국 목사) 협력선교사이며 이 교회에서 성경대학 강의를 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웨퍼드신학교 분교를 맡아 운영하다 은퇴하고 LA로 왔다. 미국에 온 후에는 라디오를 위한 신학교를 운영하고자 했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혔다. 그때 “신학교나 목회나

선교나 모든 일이 영혼 구원이 목적”이란 생각이 들면서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는 전도 사역은 재정이 있든지 없든지, 규모가 크든지 작든지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그래서 시작한 사역이 이 무료 전도지 사역이다. 4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은 뉴욕, 라스베가스, 휴스턴 등 타 지역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심지어 알래스카나 코스타리카에서도 전도지를 보내 달라고 하는 등 사역이 확대되고 있다. 문의는 213-220-3725, psamslee@gmail.com,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90248로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천천히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 통 : T(213)703-6863
Office :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2016 丙申年 新年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사람되길”



엄규서 목사
남가주목사회 회장

남가주 한인 목사회를 사랑해 주시고 물심으로 협력해 주시는 선후배 및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3주년을 맞는 이민 역사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관 중 하나인 본회는 항상 이민자들과 애환을 함께 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 초기 정착하기 힘든 이민자들을 위해 목회자들의 헌신적 노력을 다하여 왔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이룸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믿음의 종들과 변함없는 마음으로 본 회를 위해 기도해온 신실한 주의 종들이 계셨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미주 한인 사회와 기독교는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의 크고 작은 일들이 한

인 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민자들이 목회자들을 향한 기대치는 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의 행동과 생활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복음전파와 사역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소수 목회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복음사역에 악영향을 끼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를 등지는 일은 안타깝고 하나님 앞에 죄스런 마음뿐입니다. 목회자를 믿고 따라온 이민자들에게 실망과 낙심을 주었던 것들도 민망히 여기며 자복해야 할 부분입니다.

새해에는 본회 회원들을 시작으로 남가주 지역의 모든 목회자들이 기본적 교육인 Boundary Training을 통해 참된 목회자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덕목들을 재조명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목회자의 아름다운 행실이 하나씩 뿌리 내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사회와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기 때문입니

다. 나아가서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환으로 Healing, Caring, Serving을 이루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Healing이라 함은 상처 받은 목회자들이 먼저 상처를 치유 받고 나아가 함께하는 이들을 치유하는 일입니다. Caring은 목회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며 위로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Serving은 함께하는 이민 사회에 나아가 잔잔한 은혜를 끼치며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와 이민 사회 속에서 신성하며 건강한 영향을 끼치는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이웃과 모든 공동체에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의 변화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해지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이 주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신성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공동체와 이민 사회에 선한 영향으로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하나투어와 함께 하는 은혜와 감동의 이스라엘 성지순례 ⑤

< 예루살렘 편 >

평화의 도시(Ir=도시, Shalom=평화)라는 뜻의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의 산악지대에 위치한 도시로 그 역사가 무려 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C 1000년경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운 이래 이곳은 나라명이 바뀌고 주민들이 이주하는 등 질곡의 역사를 거쳐왔다. 현재 예루살렘은 성경상의 예루살렘 성(Old City)과 19세기 말 이후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신시가지(New City)로 구분된다. 예루살렘 성은 16세기 오스만투르크 술탄이만 1세가 쌓은 사방 1k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시가지는 그 주변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성 안에는 성경에 기록된 다양한 성지들이 자리하고 있어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 베들레헴

예루살렘 남쪽에서 10km 떨어진 도시. 성경에는 창세기 35장에 처음 언급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유명하다.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의 ‘벧트’와 빵이란 뜻의 ‘레헴’이 합쳐져 ‘빵의 집’을 의미한다. 기록상으로는 BC 14세기에 처음 등장하는데 부근 마을과 유목민의 교역소로 발달했던 곳이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가 그리스도가 탄생한 동굴 위에 아도니스 신전을 세웠으나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성지순례를 왔다가 신전을 파괴하고 예수탄생기념 교회를 짓게 했다.

가 4-6세기경 세운 비잔틴 수도원의 흔적을 발굴했다. 목자들이 밤을 새우며 지낸 몇 개의 동굴위에 지은 것이라고 알려졌다.

3. 엔케렘

‘포도밭의 샘’이란 뜻으로 성모 마리아의 사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촌인 세례 요한의 출생지로 알려졌다. 4세기 이후 기독교인들에 의해 성지가 된 이후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계속>

문의: 엘에이 본사(213)736-1212
김상준 매니저(213)201-5369
무료전화: 1-877-464-6121
FAX: (213)736-1221, (646)349-3971
웹사이트: www.usahanatour.com
주소: 3053 WEST OLYMPIC BLVD #101
Los Angeles, CA 90006

1. 예수탄생기념 교회

AD 324년에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지은 교회. 화재로 타버렸으나 바닥을 장식한 모자이크의 일부는 지금도 잘 보존돼 있다. 입구가 유달리 작아 머리를 숙여야 들어갈 수 있다. 이 십자가를 대신진 곳이다.

2. 목자들의 들판 교회

전승에 의하면 이곳에서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렸다고 한다. 프란체스코 수도회



매니저 김상준.

기독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시명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하나로커뮤니티교회가 지난 3일(주일) 임직예배를 드렸다. (맨 앞줄 오른쪽으로부터 세번 째) 담임 이승준 목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직분자 되라”

하나로커뮤니티교회... 장로·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 드려

하나로커뮤니티교회(담임 이승준 목사) 임직예배가 1월 3일 주일 오전 10시에 열렸다. 이승준 담임목사의 사회로 거행된 임직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임직순으로 진행됐다.

민수기 20장 1-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설교에서 이승준 목사는 “모세의 생애에 가장 슬픈 사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석을 두 번 친 ‘트리바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일”이라며 “지도자는 하나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을 때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셨다. 직분자들이 온유함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임직식에서 흥용화(장로), 서명수(안수집사), 국경화, 김성임, 명현미, 이해진, 전정석, 정성임(권사)가 각각 임직했다. 임직식은 각 직분자들에게 문답과 서약, 안수기도, 공포, 임직패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임직자들에게 권면을 전한 찰스 김 목사(CRC 한인사역 코디네이터)는 “직분자들은 먼저 희생과 헌

신하는 마음으로 비난과 불평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말했다. 교인들에게 권면을 전한 Louie Dubois 목사(Cal South 노회 카운셀러)는 “담임목사와 함께 직분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섬기고 낮아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가라”고 전했다.

인사를 전한 이승준 목사는 “임직의 자리는 축하를 받는 자리보다 섬기는 자리이다. 모든 임직순서도 간소화 했다”면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임직하게 되어 기쁘다. 너무나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인규 기자

감사의 계절을 맞아 탑미디어에서 할인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설교시디

행사용 시디앨범

각종 현수막 및 스탠드배너

기념 수건

2016 축복 말씀카드

신년표어를 담은 열쇠고리, 텀블러, 머그컵 제작

\$20 OFF

(\$100 이상 구매시 사용가능합니다.)

Code:Thanks153

이메일 주문시 쿠폰코드를 써 주시면 됩니다. 쿠폰은 1회 사용가능하며, 중복할인은 불가합니다. 유효기간은 2015년 12월 4일 주문시까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2:12-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구원을 이루어가는 교회

빌립보교회는 자주물감장수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세웠습니다. 그 빌립보교회는 사도바울이 꽤 오래 머무르면서 진리와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체질신앙이 어느 정도 훈련받고 길들여진 교회였습니다. 사도바울이 마게도나로 가서 데살로니가교회를 세울 때에도 이 빌립보 교회만이 선교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빌립보교회가 사도바울의 복음사역을 위해 많은 헌신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성과를 올리기 위하여 같은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생각은 영으로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여겼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목적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도바울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아주 감동적입니다.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볼 때에는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잘 살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 바울과 같은 관점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예수님의 안내자라고 증거 하실 때, 세례요한은 오로지 그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에 가 있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지금 잘 믿고 살아있는 세례요한 보다 더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의 신앙은 아직도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미완성이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장 완성된 신앙인으로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교회가 잘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이 천국 들어가까지는 원수 마귀들의 유혹과 위협, 여러 가지 고문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영적인 믿음이 혹시

라도 육적으로 돌아서서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그 인생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갈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끝까지 완성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2. 영혼구원이 소원인 교회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말로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성령님”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6-17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신 것도 됐고, 아들도 모신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13절)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뜻이므로 신적 작정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 그 남은 인생의 목적과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고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소원으로 하는 성도들로만 교회 구성원이 다 이루어졌다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가난 때문에 신앙이 휘청거리는 형제에게 100만 원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긴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달한 것이며, 전달된 것은 내 것이 아닌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가 관리하는 입장이지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을 위하여서 서로 주고받고 이끌어주고 할 때 절대로 다툼이나 시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3. 목자의 면류관이 되는 교회

이러한 개인과 신앙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됩니까?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15절) 그렇게 살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이기적이거나 자

기중심적인 것이 전혀 없고,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뿐이구나.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만 보여지고 전달되고 느껴진다.’ 이것이 곧 나를 통해 예수님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지게 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시다. 그럴 때 나는 흠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생명의 말씀이 밝혀집니다.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나의 생활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만 돋보여지고 전달되어지도록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결론은 참 목 메이는 구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빌 2:17-18)

빌립보교회가 성령에 이끌려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서 복음의 제물이 된다면, 그 제물위에 사도바울 자신의 생명의 피를 함께 쏟아 너희와 내가 함께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러지고 싶다는 사도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빌립보교회를 향한 사도바울의 간절한 소원의 심정이었습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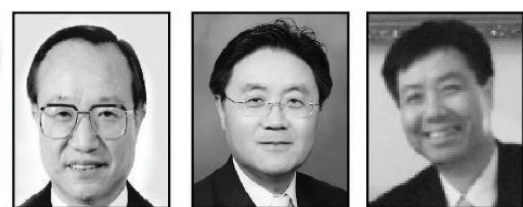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미주 제 58차 성경완독집회
2016년 1월 18일~21일

3박 4일

성경 66권 완독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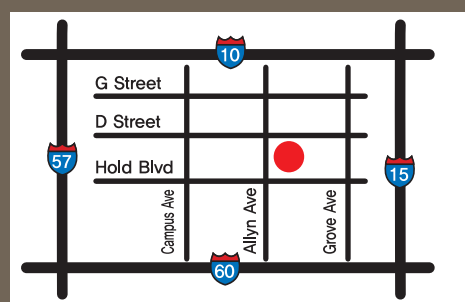


안성기 목사 이희철 목사 김동원 목사

신구약 65권 전권을 3박 4일(약 50시간)에 통독하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합니다. 성경읽기가 재미있고, 성경을 암송하고 싶어지며,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는 훈련입니다. 본 성경통독과 암송훈련을 통하여 신앙생활에 새로운 기쁨과 능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숙식 제공
집이 가까운분은 집에서 왕래 가능

교회 찾아오시는 길 Tel : (909)983-0994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 일시** 2016년 1월 18일(월)~21일(목)
- 장소** 갓스윌연합교회 (담임: 이희철 목사)
904 E. D Street Ontario, CA 91764
Tel : 909.983.0994 / Cell : 909.268.4279
- 주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
The John's Mission USA
- 참가대상** 교역자, 선교사, 제직, 평신도, 학생 및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

- 참가비** 1인당 \$70(숙식비 포함)
- 등록** 1월 18일(월) 당일 오전 9시~10시
- 준비물** 성경(개역)과 찬송, 세면도구, 담요 또는 슬리핑백
- 개회예배** 1월 18일(월) 오전 10:00
- 수료식** 1월 21일(목) 오후 6:00
- 특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
성경통독 세미나 - 성경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는 방법
T-QT 세미나 - 다윗의 경건생활 모범

주최 : 말씀사랑운동 미주요한선교단 Tel:(909)983-0994

Christian Preschool 원장 초빙

2016학기 Christian Preschool 자체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을 초빙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린이들을 돌보며 Preschool 운영에 열정을 가지신 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격: 원장 Director License 소지자
State Policy 규정에 의해 Preschool 운영에 결격사유가 없는 유경험자

제출서류: 이력서, 신앙고백서, 자기소개서

제 출 처: 선한목자교회
우편접수: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메일접수: info@sunhanchurch.com

문 의: (909) 591-6500



www.sunhanchurch.com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1907년 평양 대흥운동(5)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결과 중 마지막 넷째는 에큐메니컬 정신의 구현이다. 대부흥운동을 통해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형제 의식이 굳어지게 됐다. 그동안 선교사들은 그들이 한국 교회에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도하는 입장에 있었으므로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자연히 우월의식을 갖고, 언제나 위에서 가르치는 소위 갑(甲)의 태도를 취했다. 반면 배우는 한국 사람 입장은 항상 낮은 데 위치하는 을(乙)의 등식이 은연 중에 설정돼 있었다. 이런 구도 속에 이 두 그룹 간,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 부흥운동을 통과하면서, 선교사들도 자신들이 죄인임을 확인했고 자신들도 언제나 선생이나 거룩한 자들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했다.

선교사들이 이제 한국 교인을 자기들과 동등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됐다. 한국 교회 지도자나 교인에게 더 이상 선교사들은 선생으로 남아 있지 않고 같은 동료 형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은 부흥운동이 남긴 값진 결과다. 이것은 특히 그 해 평양 장로회신학교에서 일곱 사람의 첫 졸업생이 나오고 목사안수를 받음으로 이제는 한국 사람도 목사로 당당히 선교사들과 함께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됐다. 평신도 선교사들과 선교사 가족들이 한국인 목사를 선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도래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로써 부흥운동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임”(갈 3:28)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부흥운동의 에큐메니컬 정신은 교파를 초월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사경회가 장·감 연합으로 모였고, 두 교회는 서로 강단을 교류했다. 특히 길선주 목사는 여러 감리교회에 다니며 사경회를 인도했고, 감리교회 목사들도 장로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는 초교파적 성격을 띠었다. 따라서 부흥운동은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교파간의 간격과 갈등을 해소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 왔다.



김인수 교수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이상에서 부흥운동의 몇 가지 긍정적 결과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 운동의 부정적 면에 대해 논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들 주장은, 이 부흥운동이 한국 교회를 비정치화(非政治化)시켰고, 몰역사화(沒歷史化)로 몰고 갔다는 것이다. 즉 선교사들은 1905년 을사늑약이 선포되고 한국이 점점 일제의 식민지화되면서 이에 격분한 일반 백성들과 교인들 사이에 반일적 무력항쟁의 소지가 높아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그들은 한국 교회로 하여금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영적 면에만 치중하게 하여 예수 믿고 천당에 가는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교인들로 하여금 세속적인 것들, 특히 정치적인 면에는 일체 간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이 부흥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부흥운동이 끝난 후부터 한국 교회의 항일정신이 희미해졌고 교인들은 내적 신앙에만 치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부흥운동의 본원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곡해라 볼 수밖에 없다. 부흥운동, 즉 성령운동이 선교사 몇 사람이 모여 성령운동을 일으키자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성령의 역사는 인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자신에 의해 주도된다는 사실은 성령론 첫 장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던가?

또한 비정치화 문제도 ‘교회와 국가’의 문제라는 커다란 명제에서 보아도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기 위해 기독교 역사 속에 얼마나 처절한 투쟁을 벌였는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서 나온 생각이다. 예컨대 1789년 미국의 헌법에서도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명문화했다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말해, “교회는 반드시 비정치화 되어야만 한다.” 교회는 정치화할 수 없는 집단이다. 교회가 정치 집단화하여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수행하는 곳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회의 온갖 부조리나 구조적 악이나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성경이나 읽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자는 뜻은 물론 아니다. 국가가 비 복음적 일을 자행할 때는 당연히 교회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해야하고, 또 사회의 부조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점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문제를 직접 교회의 모든 조직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면 교회는 정치 집단이지 하나님의 교회일 수 없다. 교인 개인은 얼마든지 정치 집단을 만들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회 자체가 정치화 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부흥운동이 한국 교회를 몰역사화, 비민족화했다는 평가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비록 무력항쟁에 앞장서지 않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민족의 고난이나 국가 독립 상실에 결코 무관심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 민족이 고난에 처했을 때 항상 기독교인이 앞장선 사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부흥운동 후 교회가 비정치화, 몰민족적 모습을 보임으로 적지 않은 민족 지도자급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있다면 이것도 부흥운동에 대한 단견에 불과하다. 민족 지도자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교회가 비정치화한 데 기인했다면, 그 지도자들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1907년 부흥운동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성령 운동이다. 이 운동을 통해 한국 교회는 비로소 민족교회로 틀을 잡게 됐다. 여기서 얻은 영력으로 앞으로 겪어야 할 수난의 가시밭길을 헤쳐 나갈 힘을 비축했다. 한마디로 1907년 부흥운동은 한국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한 결정적 사건이라 단언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1907년 대부흥 없는 한국교회 는 없다고 말해도 좋다.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P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셜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새해 새로운 목표

새해에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자. 하나님은 사람을 목표지향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때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먼저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충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 후 그 목표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구속사역 속에 하나님의 신중한 계획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은 목표가 있을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게 된다. 사람은 목표가 없을 때 무력해진다. 목표는 방향을 정하는 것과 같다.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열매다. 모든 아름다운 성취는 집중의 결과다. 그런 까닭에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지는 말자.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집중하자.

목표는 우리의 꿈이고 소원이며 갈망이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갈망이다. 목표는 성장하고 싶은 갈망이요, 성공하고 싶은 갈망이다. 변화하고 성숙하고 싶은 갈망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도전하고 싶은 갈망이다. 목표는 더 나은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미래를 창조하는 도구이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다.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목표는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해야 한다.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이어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실현 가능해야 한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불가능한 목표를 세운 후에 스스로를 무능한 존재로 만든다. 사람은 작은 목표라도 달성할 때 자존감이 높아진다. 큰 목표를 세웠다면 그 큰 목표를 작게 나누어 성취해 가야 한다. 하루아침에 집을 지을 수는 없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끈을 목표에서 놓지 않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목표에 머물 때 목표 달성은 가능해진다. 축구, 야구, 탁구, 그리고 골프까지 모든 구기 종목에는 한 가지 대원칙이 있다.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서 생각의 끈을 놓

지 말아야 한다. 목표에서 생각의 끈을 놓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낸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날마다 실행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의 힘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인생은 작은 점 하나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 작은 점 하나에 ‘남’이 ‘남’이 되기도 하고, ‘남’이 ‘남’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얼마나 큰 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요한 것은 작은 일에 성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원한다면 너무 작아서 실패하기 어려운 작은 일부부터 시도해 보아야 한다. 변화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크게 생각하되, 작게 시작해야 한다. 아무리 큰 목표라 할지라도 작게 나누어 시도하면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성경을 암송하기 원한다면 마음을 늘 성경 암송에 두고 한절씩 외우라. 성경 통독을 원하면 하루에 구약 3장과 신약 1장을 꾸준히 읽으라. 작게 나눌 수만 있다면 어떤 큰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 새해를 맞이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케이블의 따분함을 날려버리세요. 연말연시에는 신나는 디렉티브!

2 개 한국채널

5 개 한국채널

14 개 한국채널



KoreanDirect™ 패키지 + PREFERRED CHOICE™ 패키지
오직 DIRECTV에서만 14개 한국채널과 145개 이상 영어채널이
월 \$38.98*

12개월간. *자동 청구서 결제 가입 및 24개월 약정 필요. **플러스 추가 요금.



°독점채널

SBS MBC KBS WORLD YTN CTS radiokorea arirang

SBS Plus macevery tvN EBS MBN tan NATIONAL GEOGRAPHIC CHANNEL KOREA

Arirang TV - HD 기기요구

°케이블 위성 방송 기준

오피는 2016년 1월 27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신규 가정용 DIRECTV 고객에게만 해당됩니다(장치 리스 필요). 신용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MA와 PA 제외). 초기 해지 수수료(최대 \$480)가 남은 일수로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장비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케이블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오늘 전화하세요!

1.877.602.0490

DIRECTV
Now part of the AT&T family

*패키지 오퍼: 12개월간 기본 패키지 가격에 즉시 청구서 크레딧이 포함됩니다. 고객님의 구입 시 조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패키지와 자동 청구서 결제를 반드시 활성화하고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프로모션 가격이 적용되는 12개월 후, 고객이 서비스 변경을 위해 DIRECTV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모든 서비스는 자동으로 연장되며 그 시점부터 일반 가격이 적용됩니다(KoreanDirect \$28.99/월, PREFERRED CHOICE \$48.99/월). PREFERRED CHOICE 패키지에는 자격이 되는 WorldDirect 인터넷채널 선택 서비스가 요구됩니다.

**일반 TV 서비스 규정: DIRECTV 고객 동의서 및 장치 리스 동의서가 적용됨. 고객님의 기본 월\$29.99 TV 패키지 또는 그 이상, 또는 인터넷채널 서비스 번들을 유지해야 함. 모든 HD DVR에는 어드밴스 리시버 요금(월\$15)이 부과됨. DIRECTV 리스로부터 TiVo HD DVR에 대한 TiVo 서비스 비용(월\$5)이 요구됨. 각 수신기 당 및/또는 Genie Mini/DIRECTV Ready TV/Device에 대한 월\$6.50의 비용이 고객의 여카운트에 청구됨. \$19.95의 핸들링 및 배송 요금이 적용될 수 있음. 수신기 당 비활성화 비용 \$150이 발생할 수 있음. 세금은 포함되지 않음. 프로그램, 요금, 거래 약관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음. 설치: 스탠다드 전문 설치는 최고 방 4개에 한함. 맞춤 설치 시 요금 추가. 설치 비용은 세금 조정이 적용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directv.com/legal 방문 또는 1-800-DIRECTV으로 전화.

© 2015 AT&T Intellectual Property. 저작권 보유. AT&T, Globe 로고와 모든 DIRECTV 마크는 AT&T Intellectual Property 와 AT&T 계열 회사의 상표입니다. 기타 모든 상표는 해당 소유자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버뱅크 소재 베다니한인장로교회(담임목사 방수민 · 2401 N Brighton St.)는 북미주개혁장로교회(Christian Reformed Church)에 소속된 탄탄한 중형교회다. 1993년 시작돼 22년의 역사를 지닌 이 교회에서는 약 200명의 출석교인들(주일학교 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 삼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방수민 목사가 불신자 1명과 함께 시작한 교회는 초창기에 저녁마다 전화번호부를 넘겨가며 한인 가정마다 전도를 다닌 끝에 1년만에 30여명의 성도를 모았으나 노스리지 지진이라는 날벼락을 맞아 교인의 절반 가량이 동네를 떠나는 시련을 맞는다. “불신자 전도로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에 일정한 숫자를 채우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걸로 생각했지요. 그렇지 않으면 한인교회가 이미 많은데 제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실은 선교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더군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 목회자로 인정받고 있는 베다니한인장로교회 담임 방수민 목사.

■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방 목사는 “그후 교인들이 수평이동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목회가 별 의미 없게 느껴진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며 “그것을 ‘LA는 선교 전략지’라는 깨달음이었다. 안디옥처럼. 이곳에 건강한 교회가 하나 서면 그것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그런 교회 수십 개를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말한다.

그는 다음 세대를 통해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크든 적든 교회가 건강하다면, 믿을 것이 없는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 기독교적 윤리관을 바로 심어준다면, 그들이 차세대 리더들이 되리라는 게 그의 확신이다.

“미국은 하나님께서 꼭 백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두에게 주신 땅입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울곧게 믿고 깨끗하게 이민생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좋은 옷과 운동화를 사 주는 것보다 기도하며 사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가슴에 각인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절대 잘못되지 않을 것입니다.”

방 목사에 따르면 이민교회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선교의 사명, 지도자를 키우는 2세 교육, 서로 위로하고 돕는 사랑의 공동체 일구기 등이다. 큰 교회는 큰 교회의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임무가 있다는 지론을 그는 갖고 있다. 하지만 작은 교회는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오기에 그

만큼 힘들 수밖에 없다.

평범한 이민자로 살다가 뒤늦게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서, 그는 평신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고단함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국땅에서 아심만 갖고 주변인으로 살면서 실컷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나”고 그는 반

영어권 젊은이들이 편하게 찾아와 이종언어로 예배볼 수 있는 공동체 필리핀 중국 등에 선교사 파송하고 주님 마음으로 제자훈련에도 열심

문한다.

베다니한인장로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미국화가 많이 된 공동체라는 것. 그만큼 젊은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예배 볼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것이 많은 이들의 평가다. 주일예배 때 영어통역이 제공되고 영상에 성경구절을 띄울 때도 이종언어를 사용하는 등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오는 이들이 많은 영어권 회중을 확실하게 배려하고 있다. EM을 맡고 있는 오를라호마 출신의 백인 전도사가 있어 교역자 회의도 영어로 진행된다.

“교회의 소중한 자산인 젊은 목회자들이 중도에 하차하는 일이 많은데 이는 담임목회

자들이 그들의 네트워킹을 돕고 훈련시키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는 방 목사는 “한국에서 오는 이민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한인교회들은 어차피 다민족 교회로 서서히 변해갈 것이다. 담임목회자가 큰 그림을 그리며 여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모가 작아도 이런 철학을 가지고 목회하면 훌륭한 부목사들이 서로 오려고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2차대전에서 결국 패전한 것은 가미가제 특공대를 만들어 상대방에 위협을 주기는 했으나 파일럿을 희생시켰기 때문이지요. 비행기는 1년이면 제조하는 데는 5년이 걸려요. 그러므로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키워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선교에도 각별한 마음을 두고 사역한다. 중국과 필리핀에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가 하면 7-8명의 협력선교사를 두고 복음을 전한다. 교인들은 옷, 신발, 가방 등 쓸만한 구제품들을 모아 보냄으로써 이들을 후방에서 돕는 일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 시대에 태어나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자각 때문이다.

또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일꾼으로 키워내는 제자훈련에도 힘을 쏟는다. 녹

록하지 않은 이민생활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안쓰러울 만큼 열심히 따라온다고 방 목사는 전한다.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방 목사는 캘리포니아 루터안 대학교에서 종교철학을 전공하고 풀러신학대학원에서 M.Div.를 받았다. 그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1983년 마지막날 술집에 아내를 따라 은혜한인교회의 송구영신 예배에 나갔다가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며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날 한 번 믿게 해보시라는 마음이었는데 3개월 뒤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를 지옥에 넣으셨다가 꺼내시는 바람에 기적적인 회심을 하게 되었다. 그 후로는 불을 받아 전도하러 돌아다녔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그는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도 기쁘지 않고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저절로 끊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목회자가 된다. 하나님께서 종교철학부터 공부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신앙적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그의 고백이다.

신학생 시절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생을 직사하게 했으나 동시에 당장 이튿날 아침에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누가 문밖을 음식을 놓고 가는 등 여호와이레의 하나님을 만났던 때이기도 했다. 교회를 개척한 뒤에는 렌트해 사용하던 현 예배당 건물을 1,300번이나 찾아가 기도한 끝에 시가 120만달러 보다 크게 낮은 약 70만달러에 백인 교회로부터 구입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다.

교인들로부터 기도하는 목회자,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교하는 목회자라는 말을 자주 듣는 그는 지난 2007년 ‘보리 이삭 속에 숨은 사랑’(생명의말씀사 간)이라는 제목의 간증수필집을 냈다.

이제 사역이 한 텀(term) 정도 남은 나이가 되어 간다는 방 목사는 “교세 확장에만 관심을 갖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다음세대에 리더십을 잘 계승하는 일에 마음이 간다. 목회 잘 하는 목사는 많아도 끝을 잘 맺는 목사는 드물다. 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라고 고백하며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아름다운 베다니한인장로교회의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문의: 818-845-5431

김장섭 전문위원



베다니한인장로교회 교인들이 진지하게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2016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p> <p>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대학(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장: 김시은 목사 712/31407-4569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유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범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dm@aeu.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 /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p>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길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호라이즌대학교</p> <p>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참석자들이 새해 각오를 다지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과 일치·개혁과 갱신 이뤄갈 것”

한기총 신년하례예배...영적 지도력 회복 위해 환골탈태의 마음 가져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2016 신년하례예배가 5일 오전 서울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강평 목사(명예회장)가 인도한 예배는 이영훈 대표회장의 신년사, 정확재 목사(공동회장)의 대표기도, 길자연·이용규(이상 증경대표회장) 목사의 신년 축하 메시지, 이용운·류성춘·이병순·엄정묵(이상 공동회장)·김창수(공동부회장) 목사의 특별기도, 황덕광 목사(서기)의 광고, 지덕 목사(증경대표회장)의 축도로 드렸다.

이영훈 대표회장은 신년사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새해에, 한기총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한국과 세계교회를

를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며 “우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에 최선을 다하고, 영적 지도력의 회복을 위해 환골탈태의 마음으로 개혁과 갱신을 이뤄갈 것”이라고 했다.

길자연 목사는 “우리는 바르고 옳은 것보다 당장의 이익에 더 관심을 두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이 바른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굳건히 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규 목사도 “한기총이 서로 협력해 2016년을 그야말로 화평의 해로 만들자”면서 “각 소속 교단과 기관, 그리고 회원 모두가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명과 책임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민족과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통합, 연금재단 관련 담화문 발표”

채영남 통합 총회장... 연금재단은 총회가 지킬 것 밝혀



채영남 목사
예장통합 총회장

예장 통합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2016년 새해에 도약하는 총회연금재단(이하 연금재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지난 2일 채영남 총회장은 “연금재단은 2015년 상반기 말 결산 기준 총 3,634억 원의 자산을 보유한 건실한 재단으로, 연금 가입자 13,500여 명의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우리 교단의 자랑이었다”며 “그럼에도 최근 몇 년간 무리한 기금운용자와 각종 비리 의혹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회 법정 소송과 유언비어를 양성했다”고 밝혔다.

채 총회장은 “이는 총회와 연금재단을 분열시키고 가입자의 불안을 조성했다”

며 “총회는 이에 총회 산하 기관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법과 총회의 질서보다 사회법을 우선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며 여러 모양으로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진정한 화해와 용서를 이루고, 변화와 신뢰가 이루어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총회장은 신·구 이사진들의 임기 논란에 대해 “제100회 총회는 총회법과 원칙에 근거, 제99회 총회 결의대로 제100회 총회에서 연금재단 전 이사장 외 이사 3인의 임기를 3년(2014년 12월 13일까지)으로 재확정하고 총대들의 뜻에 따라 총회 지시를 거부한 이사 5인의 전격 해임을 결의, 실추된 연금재단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이루어 나갈 연금재단 신임 이사회를 구성했다”며 “총회는 신임 이사회가 제100회 총회 결의대로 연금재단에 대한 신뢰 회복과 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일을 시작하오니, 기도와 협력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스포츠는 중요한 복음전파 도구”

스포츠선교대상 시상식 열려... 스포츠 선교사 파송식도 겸해

‘스포츠 선교’ 시대가 왔다. (사)세계스포츠선교회(대표회장 임석순 목사)가 스포츠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또 6일 서울 광진구 능동로 한국중앙교회(담임 임석순 목사)에서 개최된 ‘2015 스포츠선교대상 감사예배’를 통해 스포츠 선교에 힘쓴 스포츠인들을 시상하며, 이들을 격려했다.

세계스포츠선교회는 이날 파송식을 통해 남흥우 사격 감독(전 국가대표 사격감독, 피지 국가대표 사격감독)과 이종의 사범(TIA 태권도선교사훈련 수료)을 해외 선교지로 파송했다.

대상을 수상한 김용기 선교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소속으로 알바니아 주재 선교사와 GMP선교사대표 실행이사로 섬기고 있다. 태권도 공인 8단으로 알바니아에 최초로 태권도를 소개하며 스포츠를 통한 복음전파에 힘썼다. 현재 태권도는 알바니아 국립체육대 교양과정으로 등록돼 있다. 김 선교사는 알바니아 태권도협회 1호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현 알바니아 태권도협회 부회장 및 몬테네그로 태권도협회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다. 또 폐친 기쁨의교회, 티라나 슈퍼사교회, 우나자예레교회를 개척했다.

“北 핵실험, 세계 평화에 역주행”

한장총 6일 성명발표...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 규탄



백남선 목사
한총 대표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백남선 목사, 이하 한장총)가 지난 6일 북한 당국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해야 한다고 했다.

한장총은 “새해 벽두에 이 같은 북한

의 ‘4차 핵실험’은 우리 민족의 염원을 저버리고 세계 평화에 역주행하는,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한국교회가 더욱 기도와 자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한장총은 또 북측의 행태에 대해 지난해 8월 남북합의문 3항 ‘비정상적 상황’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지적한 뒤, 대북확성기 방송을 비롯한 심리작전을 즉각 시작하는 등 단호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진영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예배 오후 2:22 오전 8:20(토)
주일·바울중학교 / 토요일·17의비문트로나
주중새벽·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단2세를 책임지며, 이단기장을 치료하여,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연제선 담임목사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함께웃고 함께주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 735-6412 / gmcchurhc.com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 목, 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이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40 EM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한기형 담임목사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213) 487-3920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일부방 토 오전 9:30-12:30
환어침년부 오후 1:30 어머니(가)도모일 수요일 10:30

서건우 담임목사

나성서부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사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323)939-7323 / www.kwpcpla.org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환어침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찬양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정오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8:00 (토)

정우성 담임목사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주일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김경범**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목요일양재(목요일) 오후 7시 30분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산타모니카찬송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s

영어예배: 주일오전 10: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신현호** 담임목사
성경공부: 주일오전 10:30 토 오전 6:30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주일예배 오후 1:3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일복된 모임 오전 11:00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804, Los Angeles, CA 90020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튼 옆) T.(213)380-0071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정정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깊은 믿음,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생 (정부 배넌넷 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류종길 담임목사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비론교회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월) 오전 5:30

민종기 담임목사

충현선교회
블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강자원 담임목사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Bryan Kim D.M.D.

김범수 치과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213)389-0937, (213)389-0938 F.(323)735-1937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사목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중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성경공부 오전 9:30 주일학교-주일오전 10:30
영어회중예배-주일 오후 1:00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872-2405 교회, (503)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7:45 중교동부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랑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침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주일예배 오전 9시 (본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 O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오후 8:00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송재호 담임목사

하늘샘교회
제지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사우스 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11:00
다민족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365-9188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EM 2부예배(EM) 오후 1:15
3부예배 오후 2:00 중교동부예배(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유/초/중/고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 9:30/2부 11:00
2부예배 오전 9:30 중/고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평결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중/고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동부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성대대연합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경대학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목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중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1부예배 오전 8:00 장어예배 오전 10:00
2부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Awana 오후 8:00 (금)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0:00(장년)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KYM예배 오후 2:00(장년) 수요일예배 오후 8:00
KM예배 오후 3:00(장년) 금요일예배 오후 8:00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중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6: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금요성경예배 - 저녁 7:45 12631 E. Imperial Hwy. #134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Santa Fe Springs, CA 9067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최희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오후 6:30 (토)
한국어 오전 10시 (월로우일)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오후 12:00 (분반)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2016 패션 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 크리스천포스트

“2016 패션 콘퍼런스 개최”

47개국 1천 5백여 대학에서 온 4만여 명의 청년들 참석해

2016 패션 콘퍼런스가 텍사스·조지아주에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이 행사에는 47개국 1천 5백여 대학에서 온 4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했다. 패션 콘퍼런스는 패션운동 창시자이자 조지아 애틀랜타 소재 패션스티디교회의 담임인 루이 기글리오 목사가 이끄는 대형 콘서트·집회다. 올해는 애틀랜타의 필립스 아레나와 인피니티에너지센터, 텍사스 휴스턴의 도요타센터에서 연이어 열렸다.

를 주제 성구로 하고 있다.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인 라비 재커라이어스 박사는 “진리를 찾던 1960년대, 한 음악을 통해 성경을 보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는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에드 에임스의 ‘누가 응답할 것인가?’(Who will answer)를 듣게 됐고, 이후 성경을 보게 됐다. 그리고 예수님께 ‘만약 당신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당신을 따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기도했다”고 간증했다.

기글리오 목사는 행사에 앞서 성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도시들의 시민들이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존 파이퍼 목사, 크리스틴 케인 목사, 라비 재커라이어스 박사 등이 강사로 나섰으며, 참석자들은 각자가 준비해 온 수건과 양말을 노숙자들에게 선물했다.

이어 “청년들이여, 진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가? 정치적·문화적 영역 또는 많은 이들이 쫓는 영역에서 진리는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예수님은 ‘내가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고 하셨다. 진리는 논리적 일치성, 실증적 타당성, 경험적 타당성에 의해 증명된다. 특히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예수님보다 정확하게 묘사하는 분은 없다. 인간은 악에 대한 잠재성을 갖고 있다. 여러분과 내 안에 악이 깊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97년 시작된 패션 콘퍼런스의 초점은 영적인 각성을 위한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학생들을 하나되게 하는 것으로, 이어서 26장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진리에 대해 나누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기독교인들은 罪적 습관 버려야”

그렉 로리 목사 송년예배에서… 罪적 습관 버리고 예수께 헌신하라



그렉 로리 목사 © 크리스천포스트

그렉 로리 목사가 새해를 앞두고 기독교인들을 향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죄(罪)적 습관에서 돌이켜 온전히 예수께 헌신하라”고 말했다.

로리 목사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罪적인 삶을 유지하는 이들은, 마치 두 개의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야 한다”며 “그 두 세계에 양다리를 걸친 삶은 불행을 야기할 뿐이고, 자신의 罪짐으로 인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 로리 목사는 지난 12월 31일 예배에서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罪적인 삶을 살아가면, 자신의 거지된 모습에 대해 죄책감만 느끼거나 전혀 죄책감 없이 살아가게 돼 결국 불행해진다”고 지적했다.

로리 목사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는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두 세계에서의 삶을 멈추고 온전히 예수께 헌신해야 하며 그분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교회인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을 담임하고 있는 그는, 이날 여호수아 24장 설교를 통해 죄적인 삶을 멈추고 주의 집에 온전히 거할 것을 선택하라고 권면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다. 우리는 모두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당신께서 명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美10대들, 성경에는 긍정적 입지는 않아”

美성서공회 조사서 밝혀… 10대 64% 1년 3-4번 밖에 안 읽어

미국성서공회에 따르면, 미국의 10대들 상당수는 성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규칙적으로 읽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라는 주제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바나 연구소가 올해 초 설문조사 수행했다. 이들은 10대들이 부모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해 12월 미국성서공회는 “10대들 중 69%가 성경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89%는 성경이 거룩한 책이라고 했다. 성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응답한 10대들은 44%였다”고 밝혔다.

후드 목사는 “이번 조사는 10대들의 영적인 필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내년에 다시 진행할 것이다. 미국성서공회를 비롯해, 10대들과 함께 사역하는 이들에 대한 질문은 “10대들이 어떻게 하면 성경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했다.

미국성서공회의 대외협력 담당 앤드류 후드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10대들 중 성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많았으나, 성경과 가까운 이들은 적었다.

미국성서공회가 성경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대들 가운데 64%만이 1년에 성경을 3-4번 혹은 그 이하로 본다고 답변했다. 성경을 읽는 10대들 가운데 76%는 성경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4년 10월에도 미국성서공회는 밀레니엄 세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응답자의 2/3 정도가 성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후드 박사는 ‘성경에 대한 10대들의 상

이혜리 기자



©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중동지역 온라인 사역 50만 영혼 살려”

아랍권 기독교인 위한 오픈도어... SNS사역 급속히 성장

오픈도어의 중동지역 온라인 사역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아랍권 기독교인들에게 초점을 맞춘 소셜미디어(SNS) 사역으로 총 50만 명이 연결된 것이다. 매주 수천 명의 사람이 오픈도어가 후원하는 소셜미디어(SNS) 중 한 곳에 참여하고 있는 셈이다.

오픈도어는 아랍권 기독교인들이 나누고 있는 기독교 자료와 간증들이 공유되고 있는 여러 개의 웹사이트와 페이스북을 통해 사역하고 있다. 성경을 토대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단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무슬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약 3억 5천5백만 명이 살고 있는 중동지역 인구 중 50%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다. 오픈도어 온라인 사역자인 알렉스는 최근 온라인 사역의 성공에 대해 “소셜미디어(SNS)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람들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 미디어에 의해 불이 지펴진 ‘아랍의 봄’(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아랍 중동 국가 및 북아프리카로 확산된 반정부 시위의 통칭)에 대해 언급하며 그는 “이것은 또한 인터넷을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

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며 “오픈도어 창시자인 브러더 앤드류(Brother Andrew) 형제가 60년 전 폭스바겐 자동차를 타고 몰래 성경을 나눠 주던 사역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이제 인터넷을 통해 복음을 스마트한 방식으로 숨겨 아랍권에 전해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사역이 현재까지 50만 명에게 각광받고 있다는 사실은 온라인 사역이 전망이 밝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숫자가 사역의 초점이 될 수는 없다. 우리의 사역은 단지 숫자를 넘어 영혼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온라인 기독교인 커뮤니티 형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신앙이 지역교회를 형성하도록 오프라인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공적 사역이 금지된 복음의 문이 닫혀진 나라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픈도어의 온라인 사역은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의 익명성은 기독교인들에게 관대한 무슬림들이 자유롭게 기독교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이름은 보안상의 이유로 변경되었음)

[자료출처: 오픈도어선교회]

“IS가 두려워 하는 것은 이스라엘 뿐”

IS 대원들과 10일간 동행한... 회퍼 독자 인터뷰에서 밝혀

이슬람국가(IS)가 유럽 내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IS의 점령지에서 10일간 IS 대원들을 인터뷰한 독일 기자가 “IS는 전 세계에 칼리프 국가를 세우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력을 확장 중이지만, 이들이 두려워하는 유일한 국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다.

독일 국회의원 출신인 위르겐 토틀호퍼(Jürgen Todenhöfer) 기사는 2014년 겨울 IS 점령지인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10일간 지내며 여러 명의 IS 대원들을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영국 언론인 주이시 뉴스(Jewish News)와의 인터뷰에서 “IS 대원들은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력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사력은 두려워한다”면서 “그들은 이스라엘군은 게릴라 전사들이나 테러리스트들과 싸우는

데 있어서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토틀호퍼는 “IS 대원들은 미국이나 영국 지상군들의 어떤 공격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IS가 가진 전략의 일부는 미국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오도록 해 납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모술의 아파트들에 15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가운데 IS 대원이 약 1만 명이다. 이들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다. IS 대원들은 서양 군인들을 상대로 싸우다 죽을 각오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IS는 이미 수많은 기독교인들, 야지디족들,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무슬림들을 처형하고 포로로 억류하고 있다. 회퍼 기사는 다시는 IS의 점령지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안미영 기자

“영정부 무언의 기독교 몰아내기”

영성공회 사무총장... 기독교 ‘공적 영역에서 점차 쫓겨나’ 밝혀

영국 정부가 공적인 영역에서 기독교를 몰아내고 있다고 영국성공회 사무총장이 말했다.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후 영국 성공회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윌리엄 나이(William Nye) 목사는 최근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공적인 서비스 영역에 지속적인 영이 들어와, 국가적인 영역에서 무언의 ‘기독교 몰아내기’를 이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친구 외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일은 매우 드물다. 그리고 신앙을 ‘이상하고 별난 것’으로 본다”고 안타까워했다.

영국성공회는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 교회 출석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나이 목사는 “출석율이 회복될 수는 있지만, 이 같은 감소세는 향후 5년 동안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게 되어 기

쁘다. 나는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있었다. 공적인 영역의 많은 면에서 기독교가 쫓겨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만연한 것은 아니다. 분명히 목사가 있는 병원과 교도소가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신중하게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나의 개인적인 친구들은 내게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정부 기관, 혹은 중앙정부에 속한 이들은 그렇지 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기독교인임을 밝히지 않을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침묵하는 기독교인들’을 세속의 영이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영국성공회의 사역을 조용히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엘리자베스 여왕도 ‘부드러우서도 단호하게’ 영국성공회의 사역을 언급했다. 그러나 조용한 것이 침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1세기에는 종교의 역할에 대한 대화가 없었으며, 특별히 정부에서는 그러했다”고 말했다. 안미영 기자

O.C. /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시모교실, 부모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주일예배 1부 주일 9:00AM 새벽예배 월-금 5:30AM
주일예배 2부 주일 11:00AM 토 6:30AM
주일학교 주일 11:00AM NEX(한국교도) 토 9:30AM-10PM
대형한부모교회 주일 2:00PM NEX Kids club 주일 12:40AM-1:40PM
저지출전(사역훈련) 화-목 7:30PM

김일영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NEXT Sa-Rang Church
11 Musick Irvine, CA 92618 Tel (949)829-0010(office)
www.nextsarang.com

주일예배 (1부) 10:00am 수요일파기도회 9: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2부) 1:30pm 금요일전집아이데 8:0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다음날) 7:00am
회오름보기도회 7:00pm 토요일예배 7:00pm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인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양 오후 7:30 김영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장미안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리점, 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받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예배 오후 2:30 오병의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3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2: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가주 예배 : 매일 4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원예배 오후 2:30

남가주 베델 교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교회
18523 Arline Ave., Artesia, CA 90701
T.(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1:00 민경업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영 유아부 오전 11:00 EM.대학부 오후 1:30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뻑이는 교회
1200W Lambert Rd., Brea, CA 92821(Lambert&Puenje)
T.(562)691-0691 F.(562)691-0698 / nachimban.org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성령집회 오후 8:00 박재만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 오후 6:00(금)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4552 Lincoln Ave.#207, Cypress, CA 90630
T. (714) 952-0191 / www.socalfgcc.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토요일 새벽 오전 6:00 분당 허귀암 담임목사
2부 주일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공부 저녁 8:00 분당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놀워한인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562)802-4959 C.(714)308-703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금요일양예배 7:30pm 안창훈 담임목사
영아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씩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늘푸른선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EM 주일 오전 11:30 김일권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시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988-3321, www.dagamsa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고현중 담임목사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2:20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949)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8:45 금요일 Alpha 오후 7:30 이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EM예배 오전 9:30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821-9900,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4부 청년예배 오후 1:30 김한오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3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새벽 사바바 기도회 새벽 6:00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플러트 체플 Fullerton Chapel 최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월-금 5:30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217-5558

1부예배 오전 9:00 P-Jandar(Korean) 오전 11:00 이동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Children(1-6) 오전 11:00
금요일 기도모임 오후 8:00 Youth(7-12) 오전 11:00
토요일 한글학교, 에프터스쿨 College 오후 1:00

엘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250-1111 / www.beautiful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권혁빈 담임목사
2부 오전 9:15 중등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한어부 오전 11:30
KM대학원예배 오후 2:00

엘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주일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양예배 오후 8:00 흥성준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30

엘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나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769-9628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전 1:30(청년 영이) 박경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청년 한어) 장년부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FAM에배 오전 11:30(청년 영이)

엘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인터넷 생방송들이 오전 6:30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일 예배: 오후 7:30
토요일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213)291-5901 / (714)833-2568 daekwon.org

주일예배 오전 9:00 & 11:50 김민재 담임목사
새벽예배 화-토 5:30, 토 6: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친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4221 Rose Dr. Yorba Linda, CA 92885(Worship Center)
T.(714)788-3677 / www.yehindchurch.com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엄영민 담임목사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한어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양파기도회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청년예배 오후 2:00
3부찬양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cc.com

1부예배 오전 09:3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한기홍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07:3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30 금요일성령예배 오후 08:00
4부예배 오후 2: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은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기도회: 오후 8:00 주혁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히스패닉 예배 오후 5: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섬김이 예배: 오전 9:00am 금요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8:00pm
주일 한국어 예배: 오전 11:00am 새벽기도: 월-금요일 오전 5:30am
주일 영어 예배: 오전 11:00am 토요일 오전 6:00am
주일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am

토기장이교회
1808 W.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714)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조원재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8:00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33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프로모션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프로모션 B
오리지널10병 +
미네랄 화색 소금2봉지(2LB) =
\$460 **\$100** No Tax

프로모션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화색 소금(1LB) =
\$440 **\$100** No Tax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핀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피로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성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나옴.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로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갖지 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염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행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낮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경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만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려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목을 먹는 꼴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약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 이부경박사 현, 건강과학연구원장, 청주교육대학 대우 교수,
[주요 저서]: (노벨상감의 건강박사)(당뇨병 치료법)의 다수.
[상훈]: 녹조근정훈장, 철탑산업훈장, 녹조근정표장 등 수여



안전한 인터넷 홈쇼핑 www.KBSmall.com

HQ헬스 / HQ산삼 / HQ 바이오텍

LA 본점 :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세리토스직영점: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90701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 직영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12224 South Street Artesia, CA
세리토스 직영점

■ 인터뷰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김광진 감독

예수 보혈로만 동성애 치유 가능해...교회 준비되어야

동성애 끊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보혈의 능력 뿐 선천 아닌 선택, 사회가 어떻게 포용할지 숙제 '복음적 메시지'와 '동성애 실제' 균형 맞추려 해

동성애 문제를 집중 조명해 화제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다큐멘터리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지난 12월 초부터 LA 지역의 한인교회들에서 상영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영어 자막까지 제작해 한인 2세는 물론 영어권 국가들에 보급도 목표하고 있다. 이 영화를 제작한 김광진 감독은 뉴욕 출신의 미주 한인으로 이 영화를 위해 1년 10개월간 조사와 인터뷰를 수행했다. 그가 내린 결론은 이와 같다. "동성애는 죄다. 그러므로 치유되어야 한다." 그러나 소위 "나는 정상"이라고 말하는 이성애자들에게 또 다른 경고를 날린다. "이성애자라고 죄인이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교회 밖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이 다큐멘터리가 화제와 논란을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 제작하게 된 동기는?

△최근 미국 공립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부모들이 동성애 교육에 항의했다가 동성애 혐오죄로 체포되거나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며 "이 문제가 우리의 코앞에 닥쳤다"고 느꼈다. RT미디어는 선교 영상물을 제작하는 단체인데 이곳에서 동성애에 관해 올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왔고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와 호산나넷 등이 협력하게 됐다. 나 역시 동성애에 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동성애가 무엇

인가" 같은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인 가운데에도 동성애자가 있으며 또 동성애로부터 빠져나온 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큐멘터리 제작을 마치며 내린 결론이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동성애자들, 이성애자들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성애는 여러 죄 중의 하나이며 우리도, 죄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역시 죄인이다. 따라서 동성애자는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겠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죄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영화는 단순히 동성애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넘어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회도 동성애자들이 교회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교회를 다니다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다. 어떻게 동성애자를 포용할 것인가? 그것이 교회에 던져진 숙제다.

▲동성애의 해악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비판을 받지 않았나?

△물론 협박이나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비판은 아니었다. 즉, 동성애자 입장에서 감정적으로 화가 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 영화에서 동성애의 모든 것,

특히,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실체를 끝까지 보여 주고 싶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동성애는 정말 유전인가? 에이즈는 무엇이고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탈동성애자의 간증을 보여 주면서 치유가 가능하다는 답을 주고 싶었다.

물론 '동성애도 치유될 수 있다'는 복음적인 메시지'와 함께 '동성애의 실제' 두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동성애자에 대해 혐오적으로 묘사해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서 탈동성애자들을 인터뷰했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동성애에서 벗어난 경우가 많음을 알게 됐다. 물론 성 중독 프로그램 등의 세속적인 방법으로 치유된 사람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가고 마는 사례도 봤다.

그런 점에서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보혈의 능력뿐이다. 물론 그룹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다. 동성애의 쾌락을 기억하고 있는 육신의 반응을 이기는 일이 몹시 어렵다. 5-1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도 엄청난 인내력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동성애자가 돌아올 때 탕자를 받아주는 것과 같은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

▲동성애는 타고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렇게 선택한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이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자였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중도에 포기한 이유도 '태어날 때부터 그랬기 때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뉴욕 출신의 한인 김광진 감독.

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은 '은혜의 찰나'다. 복음을 만나고 나면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하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동성애와 기독교의 부딪힘은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진화론으로 인해 창세기 1장이 부정되고 결국 하나님의 창조질서도 거스르게 된 것이라 본다. 나도 동성애 문제를 부드럽게 돌려서 말하고 싶었지만, 이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하기에 그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다큐멘터리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

△나는 1년 10개월간 25명을 인터뷰했다. 편집만 수개월이 더 걸렸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동성애자를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아픔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 보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향해 깊은 애정과 돌보심을 갖

고 계심을 알게 됐다. 특히 무명의 감독을 통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확신하게 됐다. 이 영화로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사명을 다한 것이다. 레이디 가가가 동성애 금지국에서 공연하고 나면 그 나라에 동성애가 합법화된다고 한다. 이렇게 한 명이 영적 흐름을 바꾸어 놓는다. 이 문제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대비해야 한다.

미주에서는 특히 청소년, 대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다. 원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도 자녀 세대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 아름다운 성에 대한 미디어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영화업계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면 사실상 끝장이다. 나도 협박을 많이 받았지만, 그런 협박을 받으시오�히려 반드시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 내 커리어가 희생된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김준형 기자

• 채영삼 칼럼

'헬조선' 과 기독청년



백석대 채영삼 교수

'헬조선'이라는 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 최근에는 '설국열차' 같은 한국열차' 이야기까지, 점점 더 파괴되는 가정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부실한 복지제도, 지나친 기업위주의 정책으

로 인한 노동환경 악화 등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헬조선' 논란은, 사회 구조 자체가 불공정하고 불의하다는 의식이 핵심입니다. 이런 사회와 세상을 그대로 두고, 교회도 역시 '예수 믿고 복 받자, 이중, 삼중, 사중 축복이다'는 식으로 유사-복음에서 나오지 못한다면, 이 시대의 청년들은 좌절할 것이다. 그것은 최근 점점 더 독자들에게 외면받기 시작한 '자기계발서'의 허

구성과 동일한 맥락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왜곡한 교회가 세상에 선했던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세속적 욕망과 경쟁에 뛰어들어, 스스로 세상처럼 되어버려, 기독청년들이 더욱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이미 일어나고 있는 운동이지만, 그래서 기독청년들에게 해법은 복음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 먼저일 것이다. 세속화된 복음, '자기계발서'같은 복음과 설교, 그런 경쟁을 부추기다

못해 이제는 '상급론'을 옹호하여 세속적 욕망과 경쟁을 부채질하는 일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을 상대화 시키는 절대 복음이 회복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이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가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절대 복음이다.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가 되는 절대 복음이다. 무엇보다, 복음의 '반(反)세상적, 반(反)시대적' 성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복음이 아니라, 진정 '세상'을 이기는 복음이 부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과 규모, 그 방식과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기독청년들이 이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CGMA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 목사고시 공고

응시 자격 : 본 교단에서 인정할 정규 신학대학교의 MDVI 과정을 이수한 자

목사고시 일정 안내

1. 서류접수 마감 : 2016년 1월 25일 까지 (우편 소인)
2. 제출 서류 : 1) 이력서 2) 신앙고백서 3) 자기 소개서 4) 졸업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고시료 \$400 Check (Pay to: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3. 고시과목 : 1) 논문 : 이민 목회의 비전 (30페이지 이내) *1월 25일까지 이메일이든 메일로 접수
2) 주해 : 마태복음 5장 3절~10절 산상보훈 *1월 25일까지 이메일이든 메일로 접수
3) 설교 : 본인이 본문과 제목 선택하여 설교문 작성하여 메일 필기시험 과목 : 구약, 신약, 교회사, 신조, 요리문답, 일반상식, 면접
4. 고시 사전 교육 일자 : 2016년 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5. 고시일자 : 2016년 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6. 고시장소 :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7. 서류 및 논문, 주해, 설교 접수처 : 681 S. Bonnie Brae ST, #103, Los Angeles, CA 90057
이메일 접수처 : hananimsarang@hanmail.net
hananimsarangkijy@gmail.com
8. 문의 전화 : Tel (213)999-6884, (213)272-6031
9. 고시 합격자들은 2016년 3월 7일 월요일 서부지역회와 2016년 3월 14일 월요일 남부지역회에서 안수를 합니다.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zness *Optional : Fax & Finisher

●이슬람 바로 알기

유럽에서 이슬람 인구 증가로 나타난 다양한 문제들

유럽에 이슬람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들이 심상치 않다.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은 다문화는 실패했다고 공언하였다.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 총리는 2010년 10월에 “다문화 사회를 건설해 공존하지는 접근법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선언하였다.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는 2011년 2월 5일 독일 뮌헨의 국제안보회의 연설에서 “실패한 정책(다문화주의)을 접을 시간이 됐다”고 선언하였다. 스위스 베른대의 크리스티앙 요프케(Christian Joppke) 교수는 “적어도 유럽에서는 이슬람교도 때문에 다문화주의가 후퇴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프랑스 사르코지(Nicolas Sarkozy) 대통령은 2011년 2월 10일에 ‘프랑스식 이슬람’이 아닌 ‘프랑스 안에서 이슬람’을 반대한다고 선포하였다. 이슬람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유럽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테러리즘

많은 유럽 무슬림들이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IS(Islam State, 이슬람국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에 의하면 IS에는 중 프랑스 무슬림 1,200명, 독일 무슬림 500-600명, 벨기에 무슬림 440명, 러시아 무슬림 800-1,500명이 있으며, 그 외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이탈리아, 핀란드 등에서 참전하고 있다. 영국 국회의원인 칼리드(Khalid Mahmood)에 의하면, 영국 무슬림들 가운데 약 2,000명이 IS 전사로 싸우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다. 그 가운데 약 20명이 죽었고 500명은 이미 싸우고 돌아왔다. 그들 가운데 영국에서 테러 관련자가 2013년에 25명,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40명 체포됐다.

영국 내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6-24세의 젊은 영국 무슬림들은 그 부모 세대보다 종교적으로 더 보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약 50%가 미국에서 일어난 9.11테러의 책임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있다고, 41%가 다이애나 전 왕비가 무슬림과 결혼하려다 살해당했다고 믿는다. 대부분 이슬람 공립학교와 이슬람법을 선호하였으며, 여자들이 머리에 히잡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

18세기 기독교를 공격한 계몽주의의 주무기는 ‘조롱’이었다. 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이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1989년 인도계 영국 작가였던 살만 루디시(Ahmed Salman Rushdie)는 “악마의 시”라는 소설을 썼다. 이슬람권에서는 그가 예언자 무함마드를 조롱하였다고 보고, 그에 대한 살해 명령을 내렸다. 2004년 네덜란드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화가 반 고흐의 동생의 5대손이자 영화 감독인 데오반 고흐(Theo van Gogh)가, 이슬람 여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하였다. 프랑스인 교사인 로버트(Robert Redeker)는 2006년에 프랑스 잡지 피가로(Le Figaro)에 쓴 논평에서 “무함마드는 증오의 달인”이었다고 해서 살해의 위협을 받았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공존한다는 사실은, 무슬림이 유럽에 이주한 순간 과거의 일이 되어 버렸다. 유럽인들의 예술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독립성에 대하여 무슬림들은 적대감을 드러내고 반대한다.

3. 샤리아의 도입

유럽에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지만, 무슬림들은 공동체 안에서 이맘(Imam)과 연장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신본주의적 이슬람 규범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세속법을 반대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이슬람법을 원한다. 이슬람 수용 사례 중 하나는 샤리아의 도입이다. 샤리아(Sharia)는 이슬람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를 적용하는 법령이 현재 영국 사법제도의 일부로 공식 편입되었다. 2007년 8월에 무슬림 국제법원의 샤리아재판소를 여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2009년에는 영국 전역에 85개의 샤리아 법정이 세워졌다. 영국에서 16세와 24세 사이의 무슬림들 중 37%는 샤리아 도입을 찬성하고, 37%는 이슬람을 떠나는 무슬림에 대하여 사형시키는 것에 찬성하였다. 아일랜드 거주 무슬림의 57%는 아일랜드가 이슬람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4. 근친결혼

무슬림 남성의 부인들은 대부분 사촌관계다. 2010년 BBC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모든 파키스탄 이민자들 중 절반 이상이(55%) 사촌과 결



유해석 선교사
FIM국제선교회 대표

혼했다. 이러한 근친결혼으로 인하여 영국에 사는 파키스탄 가족이 다른 가족에 비하여 13배 이상 유전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덴마크 출신 심리학자 니콜라이(Nicolai Sennels)는 무슬림 근친결혼에 대한 대대적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의 자료는 근친결혼한 무슬림들의 IQ가 평균보다 10-16점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덴마크에서 2007년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근친결혼을 하는 아랍 배경을 가진 이민자 자녀 중 3분의 2가, 10년 동안 덴마크 학교에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다.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위한 특별 교육에 대한 추가 비용 지출액은, 덴마크 학교 재정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덴마크 국립과학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은 “IQ 70 이하의 아이들이 태어날 확률이 일반 부모에게서는 1.2%인데, 근친결혼 부모에게서는 6.2%로 4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를 얻어냈다. 또한 “악성종양, 선천적 기형, 정신적 지체 및 육체적 장애가 보통 부모 사이의 아이보다 근친결혼 부모 사이의 아이에게서 더욱 많이 나타난다”며 그 결과 국가의료서비스(Nation Health Service)의 지출을 높이게 된다고 분석했다.

5. 여성 할례

무슬림 여성들에게 순결은 중요한 덕목이다.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Free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 할례는 유럽 무슬림들에게서 일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슬람사회에서 당연시되고 있다. 벨기에 국회의 엔트위즈 상원의원은 벨기에에서 여성 할례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살해 위협을 받고 중단하였다. 여성 할례는 음핵을 제거하는 것과 음부를 꿰매는 것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슬람식의 음핵 절개는 전 세계 28개 나라

에서 이루어진다. 이집트, 수단, 소말리아, 지부티, 에르트리아를 포함해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와 중동 국가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여성 약 17만 명이 지난 10년 동안 할례를 받았다. 여성 할례가 1985년부터 영국에서는 불법이지만, 이 법이 잘 지켜지지 않자 2003년에 더욱 강화됐다. 유니세프(unicef)에 의하면 전 세계 1억 2천 5백만 명의 여자 어린이 및 어른들이 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

6. 명예살인

명예살인은 전 세계 이슬람 국가들과 유럽에 사는 무슬림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다. 명예살인이라 가족 혹은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 혹은 조 직 내 구성원을 살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명분이다. 2005년 독일연방범죄조사국(Bundeskriminalamt)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에서 45건의 명예살인이 이루어졌다. 이슬람에서 남성은 부인 또는 딸들과 자신들의 공간인 집을 외부에게서 지키는 것을 통하여 명예를 획득하며, 사회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요구되는 의무를 수행하여 공적인 명예를 지킬 것을 강요받는다. 여성을 살해하는 것은 벌주기 위함이라기보다 가족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에 의하면, 오늘날 전 세계에서 무려 1년에 5,000명 정도(하루 평균 14명)의 여성들이 명예살인을 당하고 있다.

7. 일부다처제 실행

꾸란은 일부다처제를 합법적으로 허용한다. 꾸란 구절을 보면 한 남자에게 4명의 부인을 허용하고 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 가운데 5-10%는 일부다처제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에 이슬람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영국 정부는 무슬림 이민자들의 일부다처를 인권 차원에서 받아들이며, 이에 대해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마련했다. 2008년 2월 연금공단(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에서는 일부일처 외의 결혼을 승인하는 지침서를 만들었다. 이 지침서는 “일부다처의 결혼을 인정하며, 연금을 청구하는 부인이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부인세(Couple Rate) 한화 약

5만 원(33.65 pounds)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영국에서 무슬림들이 추가로 결혼할 때마다 그 혜택에 대한 부담을 다른 납세자들이 져야 한다는 논리다. 일부다처는 프랑스에 몇만 가구나 존재하며, 그들은 대부분 무슬림이다.

8. 유럽사회에 동화되지 않음

유럽에 들어온 무슬림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 이슬람을 자국화하기 위하여 유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하여 통합을 추진했던 프랑스에서는, 젊은 무슬림들이 자신을 프랑스인이기에 앞서서 무슬림이라고 생각한다. 영국 군대는 무슬림들을 입대시키려는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슬림 입대자는 일반 영국인들에 비해 20분의 1에 불과하다. 유럽에서 이슬람의 열정은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무슬림 학생들 중 85%가 자신의 종교적인 믿음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독일에서 터키 무슬림 학생들 중 68%가 자신들의 종교가 유일한 종교라고 답했으며, 일반 독일인 학생들 중에서는 6%만이 그 같이 대답하였다. 그리고 라마단 기간 동안 유럽 무슬림의 70%가 금식한다.

9. 유럽인들이 떠난 자리 채우

유럽인들이 떠나면서 무슬림들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다. 유럽에 이민자들이 많아지자, 유럽인들이 다른 나라로 떠난다. 독일에서는 2001년에 109,500명, 2005년에 144,800명이 자신의 조국을 떠나서 캐나다, 호주 등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프랑스에서는 북부아프리카에서 온 무슬림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떠난다. 이스라엘의 유대인협회(Jewish Agency for Israel)에 의하면, 2002년 무슬림들이 유대인을 공격하자 3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총 인구의 0.5%)이 캐나다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2004년에 데오반 고흐가 암스테르담에서 무슬림에 의하여 살해당하고 나서, 네덜란드의 이민 담당기관에 13,000건의 이민 관련 문의가 쏟아져 대사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인구통계학으로 볼 때, 유럽에서 백인들이 줄어들고 있다. 유럽인들이 유럽을 떠나면서 그 자리를 무슬림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이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복사기 무료

칼라카피

10%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내 영혼의 거룩한 선택
이동원 | 두란노 | 200쪽

영혼을 아름답게 하는 12가지 거룩한 선택.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가? 선택 앞에 흔들리는 이들을 위한 이동원 목사의 12가지 거룩한 선택. 이 동원 목사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이 시대의 대표적인 복음 설교가다. 선택에 따라 결과 또한 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 책은 12가지 선택 기준을 통해 우리 인생을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맡기도록 안내한다.



황하의 물결
최황규 | 흥성사 | 320쪽

21세기 G-2로 부상한 중국. 지구촌에 '황하'의 물결이 파도치고 있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죽의 장막이 걷히고 중국인 인해(人海)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이 책은 "위험한 일" "미친 짓" "세상물정 모르는 바보" "민족 반역자"라 낙인찍힌 채 중국인들과 생사를 건 동행의 발자국. 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에서 질경이처럼 살아가는 중국인들을 온몸으로 품은 목사의 이야기.



돕는 기도
프랭크 루박 | 규장 | 176쪽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도. 기도의 어마어마한 능력. 이 책은 기도로 하나님을 돕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의 필요를 연결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 책은 꼭 필요한 기도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할 일들을 알려준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에도 강하고 행동에도 강한 사람이다.



선지자적 반시대성
오스 기니스 | 이레서원 | 192쪽

우리는 항상 시간에 쫓긴다.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보다는 바쁘게 사는 것을, 옛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좋게 여긴다. 이것은 시대정신이다. 하지만 저자는 시대정신의 압력에 무조건 순응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저항해야 하고 역사와 성경의 눈으로 그 진위를 분별하라고 한다. 이 책은 세속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성경의 눈으로 시대를 보고 참된 소명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



REVIEW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한 때”

우리의 삶은 처음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이 전부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왜 이토록 나약하게 살아갈까 하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 세상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일상에서 자연스레 찬송이 흘러나오기보다 삶이 가져오는 문제들에 대한 복잡다단한 생각들을 하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인가 하고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은혜로서 거룩하고 흠 없게 보전하신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면 족하고도 넘쳐흐른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다.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은혜가 없으면 기도도, 믿음도, 사랑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다. 힘든가? 절망적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가? 은혜에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절실한 때이다.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않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하는 찰스 스펀전은 이 책에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누리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파기할 수 없는 은혜의 언약을 상



어떻게 은혜를 누릴 것인가?
찰스 스펀전
브니엘 | 208쪽

세히 설명하고 있다. 죄의 용서, 내적 평안, 속박으로부터 자유, 천국에 들어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흔들릴 수 없는 기도 응답의 확실

성, 성령 충만의 놀라운 은혜 등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지 못하는 영적 능력에 관하여 말씀을 통해 조목조목 탐구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우리의 간구함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보물창고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자신의 기쁨을 지금 받을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실로 우리의,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이 되길 원하신다. 십계명의 첫 계명을 차치 하고서도 성경에서 “네 하나님”이라는 말이 포함된 구절만 삼천여백 개가 넘는다. 하나님은 실로 그분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많은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구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라.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향해 내려지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고 갈구하는 사람에게 한없이 내려진다. 하나님과 가까이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된다. 은혜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다. 이영인 기자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에 에세이를 연재하며 교회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영혼의 저널리스트**로 주목 받고 있는 소강석목사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신앙, 역사를 향한 뜨거운 외침이 당신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꽃씨 심는 남자

소강석 에세이집

“그는 거친 황야를 달리는 들소처럼 가슴을 뜨겁게 하는 아성과 소망이 있다.”
- 이어령 교수 -

“목사, 시인, 애국자 등 그가 지닌 세 얼굴이 때로는 교차하고 때로는 번갈아 드러나면서 글 읽는 맛과 호소력을 더해준다.”
- 이선민 조선일보 기자 -

336면 / 14,000원

샘터

전국 기독교 및 일반 서점 절찬리 판매!

소강석 기념식 낭송시 모음집

평화의 꽃씨

을 열어주소서

한국교회 최초 기념 시집! 목회자들에게 기념예배 참고와 교회 대표기도를 하는 중직자들에게는 기도문 작성에 큰 도움이 될 영성과 감성의 시적 언어! 예배 인도자들이 꼭 한 번 읽어야 할 시집!

소강석 지음

251면 / 10,000원

쿰란출판사

한글인터넷주소 : 쿰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cumran.co.kr • 서울 홍로구 이화성길 6 • TEL. 747-1004(내)

“방황하던 아들과 죽음을 생각한 엄마의 회복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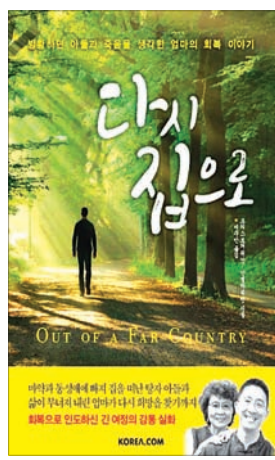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희망으로의 감동적인 실화

마약과 동성애에 빠져 집을 떠난 아들과 삶이 무너져 내린 엄마가 다시 희망을 찾기까지의 감동적인 실화를 담은 책 「다시 집으로」가 발간됐다.

중국인 이민자 안젤라 위안은 미국에 정착해 남편과 치과병원을 운영하며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남편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크리스토퍼 위안마저도 자신의 품을 떠났다. 자신이 꿈꿔 온 모든 미래가 무너진 그녀는, 목숨을 버리려는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

또 미국에서 태어난 이민 2세 크리스토퍼 위안은 이방인처럼 늘 위축되고 소외돼 있었다. 자신의 성적 정체 문제로 가족과 갈등을 겪게 됐고, 결국은 동성애와 마약을 좇다 에이즈에 감염된 채 어떤 미래도 꿈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른다.

엄마인 안젤라 위안과 그녀의 아들 크리스토퍼 위안, 삶이 무너져 내린 절망적인 순간에 이 두 사람



다시 집으로
크리스토퍼 위안, 안젤라 위안
Korea.com | 320쪽

은 하나님을 만나 치유의 길로 들어선다.

안젤라 위안은 깨어진 가정을 회복하고 아들의 참된 행복을 소망하기까지 고통스럽고도 긴 과정을 거쳐야 했다. 크리스토퍼 위안은 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났고, 예수 그

리스도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

크리스토퍼 위안은 무디신학교(MBI)에서 학사 학위를, 휘튼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밴델신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무디신학교에서 시간 강사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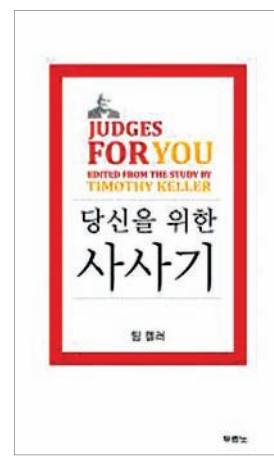
안젤라 위안은 사업가로서 중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두 사람은 함께 미국과 각국을 순회하며,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이 책을 추천한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는 “동성애 확산과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저지에 힘쓰고 있는 한국교회에 크리스토퍼 위안과 안젤라 위안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사사기의 영웅은 하나님 한 분”

팀 켈러의 ‘당신을 위한 사사기’



당신을 위한 사사기
팀 켈러
두란노 | 364쪽

사사기의 영웅은 단 한 분, 하나님이다!

흠이 있는 백성을 위해서, 흠이 있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상 가운데 사는 삶 속에서, 여호와를 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다시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 이야기다.

팀 켈러 목사와 함께 사사기를 펴라. 못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우상인가, 사사인가. 내 마음대로의 신앙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가. 우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금도 그러하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진실로 반쪽짜리 제자들이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사람이 자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와 같은 사사기 시대와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채, 그들과 뒤섞여 살고 있었다. 우상들 가운데 살았던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바알들을 따를지를 매일 선택해야 했다. 사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실패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사기의

핵심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항상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일하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다. 궁극적으로 사사기의 영웅은 단 한 분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구원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사사기는 읽기 쉬운 책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사사기는 우리의 필독서이다.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반쪽짜리 순종의 참담한 결과와 비참함을 똑똑히 알게 하며, 끊임없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으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게 되며, 내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할 것이다.

저자 팀 켈러(Timothy Keller)는 달라스 윌라드가 이 시대에 가장 주목할 목회자로 손꼽은 탁월한 설교자이자 최근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의 한 사람이다.

팀 켈러는 뉴욕 맨해튼 리디머 장로교회 담임목사다. 1989년 50명의 성도와 함께 시작한 교회는 현재 매주 8천여 명의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그는 거대 도시 뉴욕에 사는 방황하고 회의에 빠진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그들의 고민과 의문에 진지하게 공감해 주고 성실하게 답하고 있다. 매주 3만여 명 이상이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 그의 설교를 듣고 있으며, 그의 설교는 지역을 뛰어넘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그는 2001년에 ‘교회 개혁 센터’를 세워 100여 교회의 개혁을 돕고 있다. 지금도 전 세계 목회자들이 그의 사역 방식을 배우기 위해 꾸준히 뉴욕을 찾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으며 버크넬대학을 졸업하고 고든 콘웰신학교와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공부했다.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당신을 위한 로마서 1, 2》, 《팀 켈러의 일과 영성》,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의 왕의 십자가》,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이상 두란노) 등이 있다.

이영인 기자

“모든 성도가 새가족을 맞이해야 한다”

성도들이 알아야 할 새가족을 위한 61가지 지침

이 책은 모든 성도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남기는 61가지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제는 모든 성도가 새가족을 맞이해야 한다! 성도들의 관심이 새가족을 웃게 한다. 성도들의 배려가 새가족을 정착하게 한다.

새가족은 담임목사의 사랑도 필요하고, 담당 교역자나 직분자의 사랑도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와 가장 오래 지내는가? 그들의 일상이 누구에게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바로 같은 성도다. 새가족은 성도들의 환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람이 마음을 알아주면 서로 통하게 되어 있다. 새가족이 교회를 찾아왔지만 그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이유는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몰라주었기 때문이다. 혹시 우리는 우리 안에 갇혀 우리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책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새가족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쉽고 명쾌하게 설명한다. 새가족이 예배드리고, 등록하고, 정착하기까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61가지 지침을 알려 주면서 새가족을 위해 진정한 배려를 실천하도록 이끈다.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터!
김민정
생명의말씀사 | 192쪽

한 사람의 교역자가, 혹은 새가족 부 봉사자들만이 애쓴다고 새가족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성도가 새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새가족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자. 모든 성도가 함께 살펴보고 배려하기 시작할 때 교회에는 곧 새로운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교회에서 교역자, 새가족 부 봉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새가족을 맞이하고 돕는 데 활용될

수 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새가족은 온전히 정착하기 어려워진다. 이제 모든 교인이 새가족을 환영하고 도우려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전체적으로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터!’ 캠페인을 진행해 보면 좋을 것이다.

먼저 구역 모임에서 또는 특별 소그룹을 구성하여 함께 이 책을 읽는다. 그리고 새가족을 위한 나의 다짐을 각자 적어 본다. 그런 다음 지금까지 새가족을 어떻게 대왔는지 돌아보고, 앞으로는 새가족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할지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터!’라고 함께 구호를 외치며 전 교인이 합심하여 새가족을 위한 지침을 실천한다.

새가족을 환영하고 정착을 돕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저 말 한마디 건네는 편안한 친구가 되어 주는 것만으로도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성도가 주일 하루만은 새가족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며 영혼 구원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침체된 교회 성장에 생명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이영인 기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독교동족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i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어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점게 하는 세제 "에미나"

우리 가정에서 생활세제는 20가지가 넘습니다. 대부분이 화학세제로서 아토피, 알레르기, 피부질환의 원인이 되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이 화학세제를 친환경, 무공해, 항산화 효소세제인 "에미나"가 이제 대신합니다.

일본에서 토양 속의 이로운 균을 이용하여 효소로 제조된 "에미나"는 세탁, 설거지, 화장실, 욕조, 마루, 생활 용품, 세차, 어항, 냄세제, 목욕, 양치질, 애완동물 관리, 화초, 텃밭가꾸기에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무공해 친환경 세제입니다. "에미나"는 **세제구입 비용과 물을 절약** 할 뿐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세제입니다.

식당 화장실 냄세제거 특효
"에미나" 스프레이 하시면 어떤 냄세든지 쉽게 없어집니다. 손님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지독한 식당의 화장실 냄세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복해 드립니다!

【가정 필수 제품: 밥줄】
밥 지을 때 밥술에 두면 밥맛이 좋아지고, 24시간 후에도 밥의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활 필수 제품: 생생 팩】
생생 비닐팩에 채소, 과일 등을 보관하면 20일이 지나도 생생합니다.

사용 효과

- **세탁:** 적은 양으로 화학 물질을 없애 주고, 유연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세탁물의 냄새가 없고, 보송보송한 건감에 도움을 주는 옷으로 만들어 줍니다.(아토피, 피부병, 상처 등)
- **청소:** (스팀 청소기, 걸레 등)에 사용하시면 냄세를 없애주고 마루, 가구, 가전제품, 세차 시 윤이 나고 먼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 **설거지:** 기름기, 탄 것이 잘 제거되고 행금을 적게 하여 물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설거지 한 물은 배수구를 청소할 뿐 아니라 식물에 주면 좋은 토양을 만들어 줍니다. 설거지, 청소할 때 고무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고, 맨손으로 하면 피부가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잘됩니다.
- **집안(가구, 이불, 커튼 등), 차, 사무실에 뿌리면 집안의 공기가 깨끗해지고, 친환경(곰팡이, 화학물질, 갈라 방사선 절감 등)으로 인해 호흡기 질환, 비염 등에 좋습니다.**
- **냄새 제거:** 화장실, 애완동물, 신발, 등에 뿌리면 냄새가 없어집니다.
- **애완동물:** 목욕시킬 때 행금을 철저히 하지 않아서 쉽고 건감에 도움을 줍니다. 어항의 수질이 변하지 않아 냄새가 없습니다.
- **농작물, 화초 재배:** 비누기루를 땅에 뿌리거나, 작물에 스프레이하거나, 세탁, 설거지 한 물을 주면 토양을 바꾸어 무공해 농작물을 재배할 뿐 아니라 병충해(진딧물)가 없고 성장이 좋아 질 좋은 작물을 많이 생산합니다. 고추 작물을 사람 키보다 크게, 해바라기를 4m 정도 키울 수 있습니다.
- **과일, 야채 씻을 때 사용하시면 농약을 분해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신선함이 오래가고, 꽃에 뿌리면 오랫동안 시들지 않습니다.**
- **양치질 할 때 극소량을 치약에 발라 사용**을 하면 입안과 치아가 깨끗해지나 먹지는 마십시오.
- **차의 에어컨 필터에 뿌리면 성능이 좋아지고, 집안이나 방창고의 온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 **활성산소 제거, 정전기 방지, 신선도 유지, 에너지 절감, 해충기피, 습도조절, 결로 곰팡이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세탁 시에는 세탁기(40리터)에 3~5g(티스푼 1개는 5g) 정도 넣은 후 세탁, 담가 두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 집안 청소 시(냄새, 모기, 파리 제거 등) 물의 1/1000 량으로 뿌려 주시면 됩니다.
- 작물에 뿌릴(스프레이) 시 1/5,000~1/10,000 정도로 1주에 한두 번 정도, 나무는 2g 정도 땅에 묻어 주면 더 좋고, 시들은 채소, 화초는 3일 정도, 나무는 2달 정도에 효과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을 사용하시면 식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 아토피 피부 1/1000 정도, 아기 목욕 시에는 1/10,000 정도로 희석하여 사용합니다.

Yirrh Healthy Living Co. 이레 건강 **Tel:323)316-6815**

833 S. Western Ave. #15 L.A, CA 90005(로테오 켈러리아)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주님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칭기시는 사역과 사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장외), 제작, 연속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할인 할리슈팅!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을 구매하여 보았나 몰라서 몰랐을 분들에게 더욱 다양한 종류의 맞춤형 배너를 제작하여 드립니다.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픏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2015년 초음파 리프팅 V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기념 세일

- *초음파 리프팅 V라인 4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초소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1주분 다이어트 약 \$60부터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만성두통, 요통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God Loves the Immigrant Church'

Interview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VII: Rev. Ronnie Park

BY RACHAEL LEE

Reverend Ronnie Park credits his deep love for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o the positive models that he found in older Korean pastors throughout his professional and personal life. Park is the lead pastor of the English congregation at Good Stewards Church.

Park's ties with first generation Korean pastors begin within his own family. His grandfather, Reverend Young Chang Park, and his father, Reverend Young Nam Park, are both pastors, and fall under the "first generation" category in the sense that both of them were born in Korea and immigrated to the U.S. His grandfather in particular was a renowned pastor within the Korean community, as he was active in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Korea.

"My grandfather is my greatest hero," Park said.

"He instilled in me the value of being Korean, and what it means to be a minister ... When he found out that I wanted to go into ministry, he went all out, telling me, 'You have to do this, do that, dress this way, etc.'" Park recalled.

From an outsider's perspective, some of his grandfather's demands may have seemed harsh, but Park said he appreciated all of it.

"He's 100 years old. He can tell me anything he wants to and I should listen to him," he explained. "I tried to take in everything he told me in a way that would benefit me, because number one, he's my hero, number two, he's 100 years old, and number three, he loves me and wants the best for me."

Even outside of his family, Park had only good things to say about the older Korean pastors that he

has worked with during his career. Park started out as an intern youth pastor at Oriental Mission Church, during which time he served under Reverend Joshua Choon Min Kang, who was the senior pastor at the time. Kang spoke to Park in English, raised support for Park's education, and invited Park to his home for meals.

"He was the senior pastor of one of the biggest churches at the time, and here he was speaking to an intern pastor in English and clearing my plate," said Park. "He was my first example of a senior pastor and I thought this was normal."

"We can't generalize what our experience was like with one person to an entire group of people."

Park also spoke highly of the founding and current senior pastors of Good Stewards Church. Reverend Timothy Kwang Il Song, the founding pastor, Park described as being "so humble, so personable," "a servant," and "one of those men you want to be like." And Park described Reverend Byung Joo Song, he current senior pastor, as one with a "different level of ministry drive" and as a "gifted vision caster and leader." With both pastors, Park has had ample communication. The founding pastor spoke to Park in English and even held pastoral staff meetings in English. And the current pastor also tries to speak to Park in English, while Park tries to speak to him in Korean.

But his experiences in pastoring weren't all "a bed of roses," as Park

put it. He also had his seasons of difficulties — yet, he says, his difficulties weren't specific to an immigrant church context.

When Park took on the role as the lead EM pastor at Good Stewards eight and a half years ago, he was actually tasked with beginning a ministry from the ground up. Previously, Good Stewards had had a relationship with Good News Chapel — a previous EM in Good Stewards that became an independent church. The two churches had shared the same campus, and Good News Chapel became the next ministry destination for the youth students at Good Stewards after graduating from high school. But when Good News Chapel decided to become completely independent, Good Stewards suddenly became in need of an English ministry and an EM pastor.

And as the longest-employed English-speaking education pastor, Park was asked to take on the role. At the time, Park was serving as a youth pastor.

Taking on a lead pastoral role after having served as a youth pastor challenged him to open up to the congregation and to minister on a much deeper level than he was used to, Park explained. And that deeper level of intimacy also put him at greater risk of getting hurt.

"When you're starting something new like this, and one, two, three people start leaving, it's a big deal," he said, because "you have all these high hopes."

Park described this season as simply a "part of being a pastor," regardless of what kind of context he may have been.

"That's just a part of ministry," Park said. "If you want to be a minister, you need to be ready to



Rev. Ronnie Park is the lead pastor for the English congregation at Good Stewards Church.

get hurt. That's not just a thing about the immigrant church. Being hurt is a part of being a minister. The hurts have nothing to do with it being a first generation and second generation issue."

This is a point that Park emphasizes — that he hopes Korean American pastors would be able to differentiate their difficulties in the church from the "cultural versus the individual." He said he tries to tell people around him his stories of positive experiences with older pastors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o show that there are indeed individuals in the cultural context of the first generation who serve as positive role models for younger pastors.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have legitimately been hurt and wronged by older pastors," Park elaborated. But they have to ask whether the wrongdoing was a result of the culture or because he or she simply had a bad boss, Park said.

"We can't generalize what our experience was like with one person to an entire group of people,"

he added. "I think when you go into something with preconceived notions, it's easy to see it in a bad way. You can think of the hierarchical nature of an immigrant church, or being asked to go to dawn prayer, in a bad way. But for me, it's like, of course church is hierarchical — even non-Korean churches are hierarchical. And you can see dawn prayer as a legalistic thing, or you can see it as a sign of how devoted the older generation is to prayer. They're praying in a way that the whole world is acknowledging," explained Park. He added that he admires the "get-it-done" attitude of the older generation — an attitude that they will do whatever they feel convicted about, no matter how impossible or costly it seems.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the immigrant church has to offer that I hope our generation is not missing out on because of being jaded," he continued. "There's a rich spiritual heritage that we have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Brian Kim of RTMedia directed the recent documentary, "I Am No Longer Gay," that was screened in California, New York, and New Jersey. (Photo courtesy of RTMedia)

Korean Christian Filmmaker Sets Out to Tell the Stories of 'Ex-Gays'

First Korean Christian Documentary on Homosexuality Released

BY RACHAEL LEE

For the first time, a Korean Christian documentary film about homosexuality has been produced and released late last year: "I Am No Longer Gay."

Suffice to say, the film has been garnering much attention from the Korean public all over the world. But the director, Brian Kim, chose to have the film's first ever screening not in South Korea, where most of the research and interviewing was completed, but in America. After the first screening in a Los Angeles church on December 8, two more screenings took place in the Orange County area, and two screenings also took place on the East Coast thereafter, in New York and New Jersey. Subtitles in English were also provided to give access to English-speaking Korean Americans and non-Korean audiences.

As the U.S. recently legalized same-sex marriage nationally, Kim said he felt a significance in screening the film in the U.S. first.

"We wanted to share God's message here first," Kim said. "We believe that there will be a spiritual breakthrough starting from here."

However, Kim said the goal of the film is not to make those who have same-sex attraction feel out-casted or hated.

Instead, Kim said the film was produced with three main goals: "to share facts about homosexuality that even those who are homosexual may not be informed of; to spread awareness that there are many in the church who know and love Jesus but also have same-sex attractions; and to ask the church, 'How will we embrace those who identify as LGBT?'"

One of the "facts" that Kim emphasized in particular is the relationship that homosexuality has with AIDS. According to Dr. Ansub Yeom, the director of

a convalescent hospital specializing in AIDS patients in Seoul, 100 percent of the over 100 patients who have been in his hospital responded that their disease was caught due to sexual relations with another man.

The film also cites studies that show strong correlations with homosexual intercourse and greater likelihoods of being infected with HIV. The studies, Kim said, have been bann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m being publicized in the media.

Highlighting the AIDS issue is not to propagate a homophobia, Kim argued, but to ensure that youths and young people don't engage in unsafe sexual relationships due to misinformation or a lack of information.

"They have a right to know these facts. Media and mainstream society distort or omit certain facts to depict it in a certain way," he said.

Numerous 'ex-gay' individuals who are active in the church also shared their stories of how they felt when their sexual curiosities led from one thing to another, to the point that they felt they had gone "too far" and "couldn't come back."

It was this feeling of having reached a "point of no return" of sorts that caused them to seek after homosexual relationships even more, they said.

How should leaders of the church respond to such members? One female pastor who was interviewed for the film had a strong word of advice.

"If you say, 'If you really love Jesus, you wouldn't do that anymore,' you are essentially killing them twice over," she said. "These are individuals who really do love Jesus."

Director Kim compared the struggle that gay Christians may be facing to the struggle many face with pornography, and described

it as a sinful addiction.

"They want to stop, but their bodies remember it and crave it, so they do it again, and they regret it. It's an addiction," Kim said. "We as the church simply have to wait alongside them."

Yet another aspect of homosexuality that Kim didn't mention specifically as a "goal" of the film, but was inevitably discussed, was the question of whether homosexuality is innate or a choice. The very focus of the film — highlighting those who were once homosexual but are no longer — makes the assumption that homosexuality is a choice.

Ex-gays, current gays, those in the church and outside of it shared their opinions on the issue. Most whose interviews were shown in the film said they believe it's a choice.

"If it was innate, I should still want that lifestyle. But now, at age 40, I don't want it anymore," shared a Christian woman who was once lesbian.

"I don't think being gay innate," said a gay man who was interviewed at a bar, and whose identity was made hidden. "Saying it's innate is not taking responsibility for it ... If it really is love, wouldn't God have allowed some way to bear the fruit of that love?"

"I Am No Longer Gay" was completed over a period of one year and 10 months, and with an investment of some \$200,000.

RTMedia, the production company behind the film, has been raising funds online (<http://go.MissionFund.org/exgay>) to host more free screenings at churches, schools, military bases, and other locations, and to provide subtitles in 10 different languages.

"I can't say I know everything about homosexuality," Kim said. "But there is one thing I do know, and that is this: if we stay by their side, they will come back."

Over 16,000 Young Adults Worship at Urbana 2015

BY RACHAEL LEE

The 24th 'Urbana' Conference launched on December 28 and saw some 16,000 college students in attendance at the Edward Jones Dome in St. Louis, Missouri. Urbana is InterVarsity's missions conference hosted once every three years since 1946.

Francis Chan, author of numerous books including *Crazy Love* and founder of RADIUS International, addressed the students and young adults during the second evening session of the conference, encouraging them to embrace the privilege of living under the authority of Christ.

"When is the last time someone said they love being under authority?" Chan said. He recalled when he first became a Christian in high school. He said he was "excited about going to heaven and about knowing God," but felt that the "downside of Christianity" was following the "rules and commands."

"I didn't get it; I didn't understand that the good news was that I get to be under his authority," he said.

Chan pointed to stories in the New Testament in which Jesus commands waves to be calm, for demons to come out, and for sick-

ness to be healed, and the authority and control that he has over all of these aspects in life.

"What do you have to fear at that point," Chan asked, as he added, "if every force of evil is under [Jesus'] power?"

"So many of us, we've made this book so figurative and obscure," Chan continued as he raised up his Bible. He said following Christ means asking, "Where do you want me to go? I'll follow you. Where is your Spirit leading me from here? I'll go. Because it's better to be under your authority than me having control and creating my own life."

And believing that living under Jesus' authority is better comes with understanding his power and who he is, Chan added, posing the question, "Do we understand who we get to follow?"

Urbana 15 was concluded on December 31, as the conference explored the theme, "What Story Will You Tell?" The conference featured more than 180 speakers including David Platt, the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of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bdu Murray, the North American Director of 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ies; and Brian Chan, the chief software architect of Liferay, Inc.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병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